4일 Market Index
코스피 2742.00 (+35.03)
코스닥 882.90 (+2.94)
금리(국고채 3년) 3.338 (-0.003)
환율(원·달러) 1347.10 (-1.80)

metro 경제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4년 4월 5일 금요일

m-커버스토리
호텔 '어메니티' 무상제공 금지
03

이재명·한동훈 지원 유세 집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울산 남구 IBK기업은행 울산지점 앞에서 전은수 남구갑 후보 지지유세를 하고 있다(왼쪽).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미관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수원살리기' 집중유세에서 김현준 수원갑, 홍윤오 수원을, 방문규 수원병, 이수정 수원정, 박재순 수원무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관련기사 4·6·8면〉 /뉴시스

"금투세 전면 폐지" vs "부자 감세 안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여야, 자본시장 공약 대립각

금투세·비트코인 현물 ETF 등 소액 투자자 표심 확보경쟁 치열

10일 열릴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 간 자본시장 관련 공약이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궁극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바라는 건 같지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소액 투자자들의 표심 확보를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연간 기준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거둔 투자자에게 20%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3억원 초과분부터는 25%가 부과돼 세율이 더 높아진다.

금투세가 주목을 끄는 이유는 여야가 개인투자자들을 위하는 '방법론'의 차이를 극명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금투세의 '전면폐지'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부터 시행'을 외치고 있다. 금투세는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주식시장 침체를 우려해 2025년으로 시행이 2년 유예된 바 있다.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2월 2일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이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자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법안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측은 금투세를 '소액주주 증세안'이라는 입장이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최소 20% 이상의 세금이 부과돼 해외 투자 자금 유출이 심화하거나 증시 매도세가 강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이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 국민의 힘이 1400만 개인투자자의 힘이 되겠다"며 투자자들의 표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어 "이미 주식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소득까지 과세하면 투자자 이탈이 우려되고 자본시장 침체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과세 대상자가 1% 수준에 불과하다며 내년부터 금투세 시행을 주장한다. 주식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투자자가 적고,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나 마찬가지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는 기존 여야 합의대로 금투세가 2025년 1월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치가 담겼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매년 1조3443억원이 걷히지만, 폐지될 시에는 연간 1조원이 넘는 국세가 덜 걷힐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청년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공약을 다루는 모습도 다르다. 국민의힘은 비트코인 현물 ETF와 법인투자 내용 등과 관련한 공약은 다루지 않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거래를 허용하는 공약을 내놨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편법 대출' 양문석에 대출금 11억 전액 회수 통보

금감원·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반 허위 증빙 등 위법·부당혐의 발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에 대한 공동검사 중간 결과, 허위증빙 제출 등 위법·부당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 후보 딸과 대출 모집인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금융감독원 공동검사반(이하 검사반)은 4일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양 후보 딸의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과 관련한 중간 브리핑에 나섰다.

검사반에 따르면 2020년 11월께 양 후보자의 배우자 A씨는 ○○대부로부터 5억8000만원을 대출받아 양 후보자와 공동으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했다. 당시 이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31억2500만원이었다. 감사반은 "A씨가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이유는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 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아파트 매입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에 당시 대학생이었던 양 후보자의 딸 B씨는 부모의 공동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 11억원을 받았다. B씨는 같은 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대출금 중 5억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상환하고 나머지 5억1100만원 어머니 A씨의 계좌로 보냈다. 대출이자는 A씨가 대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반은 이 건을 두고 대출의 용도 외 유용과 허위증빙 제출 등의 부당행위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양 후보 딸이 2021년 7월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5개 업체, 7건)도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 났다. 이 외에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여신심사시 사업이력·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해 형식적으로만 심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며, 양 후보의 딸이 빌린 11억원 전액에 대해서도 회수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 소득 기준 1.3억→2억 완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과제와 관련해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도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 구성 이후 바로 제출해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예산 집행 속도를 높여서 즉시 집행하고,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은 빠짐없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尹, 민생토론회 후속 점검회의

관련 법률개정 상반기 최대한 완료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마무리 계획 올 예산으로 가능한 사업 즉시 집행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 교통, 세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경제 분야 정책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 직접 개선을 약속한 240개 과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으로 삼았다"며 GTX-A 개통,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휴대폰 지원금 확대 등을 일일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패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에 이를 확실히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개인소득 기준이 연 5000만원 이하인데 신혼부부는 두 사람을 합쳐 7500만원이 기준이라 대출을 받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앞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을 1인당 각 5000만씩, 합해서 1억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또,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 구입과 전세를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대출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근로장려금 역시 부부 합산 기준 3800만원에서 개인소득 기준인 2200만원의 두 배인 4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8면에 계속〉

/박정익 기자 pathfinder@

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조국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 국가 만들겠다" /사진 뉴시스

▲ 한-유엔난민기구, 인태 지역 난민 문제 협력대응 강화

▲ 국민의힘 서울 후보들, '강변북로·올림픽대로·경의중앙선 지하화' 공약

▲ 정부, 올해 지방시대 정책에 42조원 투입…시행계획 의결

▲ 한 총리, 늘봄학교 일일강사로… "전담 행정 인력 배치" /사진 뉴시스

▲ 변희수 하사 순직인정… 인권위 "성전환자 인권 일보전진"

채널 다변화, 해외진출 등 성과… K뷰티 로드샵 '부활 신호탄'

K뷰티, 브랜드 지형 변화 ❷ 1세대 로드샵

최근 뷰티 업계에서는 과거 'K뷰티'를 일궈낸 1세대 로드샵 브랜드들이 소환되는 분위기다. 그 중에서도 '스킨푸드'는 푸드의 신선함과 영양을 그대로 담은 오리지널 푸드 코스메틱 브랜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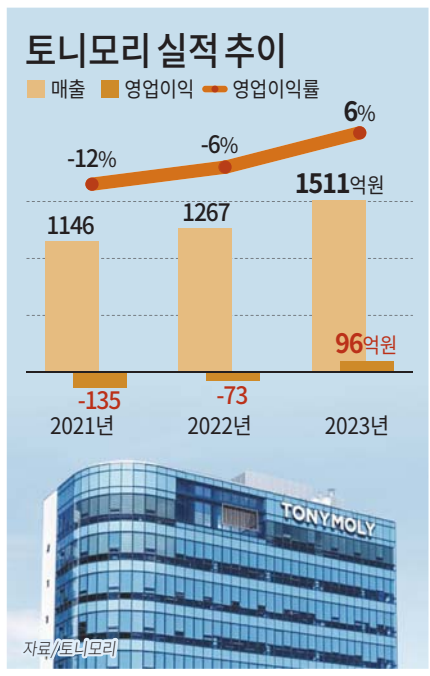
실제로 2000년대 스킨푸드는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라는 광고 문구로 인지도를 올렸다. 또 2010년에는 국내 로드샵 가운데 매출 순위 3위 기업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스킨푸드의 2023년 매출액은 589억원, 영업이익은 89억원이다. 이는 각각 2022년 대비 57%, 83% 증가한 규모다. 스킨푸드는 지난 2022년에 2013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한 데 이어 2023년에는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50억원 이상 초과 달성했다.

스킨푸드는 올해 1분기에도 매출, 영업이익 등이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선전하고 있다. 이러한 호실적에는 고객과의 소통 강화, 국내외 유통 채널 확장, 주요 제품 강화, 신제품 출시 등이 주효했다는 것이 스킨푸드 측의 설명이다.

특히 스킨푸드는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버티컬 앱에 입점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했다. 그 결과, 스킨푸드는 지난해 실적 개선뿐 아니라 올리브영, 화해, 글로우픽 등 다수 뷰티 어워즈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이들 뷰티 어워즈는 국내 주요 뷰티 매체로 다양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킨푸드의 캐롯 카로틴 카밍 워터 패드는 일명 '당근패드'로 '2023 올리브영 어워즈' 패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올리브영 어워즈는 매년 약 1억 5000건의 고객 구매 데이터를 집계해 인기 상품을 선정한다. '당근 패드'는 1000만 화해 고객이 직접 사용 후기를 남기는 화해에서도 스킨·토너 패드 부문 1위에 올랐다.



스킨푸드 매출 589억 58% 증가 영업익은 89억, 전년비 83%↑ 소통강화·신제품 출시 등 주효

토니모리 매출 19% 늘어 1151억 오프라인·면세 등 고객접점 늘려 미국시장 매출 전년비 40% 성장

'2023 글로우픽 상반기 어워드'에서는 '당근 패드'를 비롯해 로열허니 프로폴리스 인리치 에센스와 마스크, 판토테닉 워터 파슬리 마스크, 캐롯 카로틴 마스크 등 여러 제품이 소비자 인기를 끌었다.

이밖에 국내 최대 뷰티 커뮤니티인 파우더룸에서도 스킨푸드는 꾸준히 입소문을 타고 있다. 파우더룸에서는 '스킨푸드 당근패드 다들 아셨어요', '설마 스킨푸드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등의 네티즌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스킨푸드는 해외 시장에서는 일본 큐텐 등 주요 채널에 입점했다. 일본을 비롯해 동남아 등으로 시장 확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글로벌 뷰티 기업 '토니모리'도 2016년 이후 7년 만에 연결 흑자전환에 성공해 재도약에 나서고 있다.

토니모리에 따르면 토니모리의 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2% 증가한 1511억원이다. 또 토니모리는 영업이익은 96억원, 순이익은 30억원을 기록했다.

토니모리에 따르면 국내외 전 사업부문에서 매출 성장세가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오프라인 채널, 면세, 특수상권인 명동 등에서 고객 접점을 늘린 성과라는 것이 토니모리 측의 분석이다. 또 온라인과 글로벌에선 유통망 확장을 통해 전년 대비 각각 29%, 23% 성장세를 이뤘다.

무엇보다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신규 유통 채널을 확대하면서 전년 대비 40% 이상 성장한 매출을 기록한 것이다.

최근에도 미국 내 미니소 전점, 노스트롬 렉 270개 매장에 신규 입점하면서 미국 내에서의 브랜드 입지를 공고히 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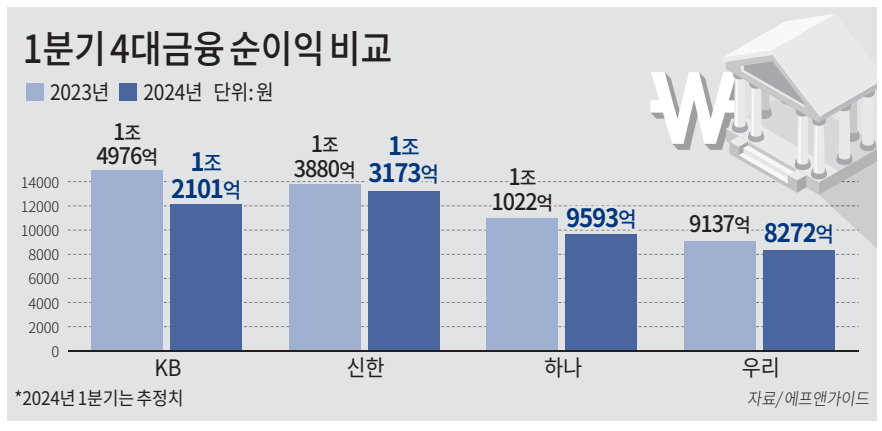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엔데믹과 K뷰티의 인기로 국내 브랜드들이 활기를 띠고 있다"며 "중국인 관광객 감소나 국내 가맹점 사업 부진, 코로나19 등 복합적인 영향이 있었겠지만 온라인 몰이나 해외 시장 개척 등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한 경쟁이 이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ELS 손실배상'에 4대 금융, 1분기 순익 6000억 줄었다

4대 금융, 1분기 순익 추정치 4.3조
영업익 6.7억… 2264억 줄어들 듯

올해 만기도래 ELS 예상 손실액
KB국민 9000억, 신한 3500억 등



4대 금융지주의 1분기 당기순이익이 1년전보다 6000억원 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배상에 따른 비용이 핵심계열사인 은행의 1분기 실적에 반영되면서 실적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 추정치는 이날 기준 4조3139억원으로 1년전과 비교해 5876억원 감소했다. 1분기 영업이익 역시 6조6520억원으로 같은 기간 226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홍콩 ELS 배상에 4대 금융 손이익 '뚝'

4대금융의 순이익이 감소한 이유는 은행 계열사를 중심으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배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4대은행은 홍콩 H지수 ELS와 관련해 이사회를 개최하고, 손실 배상 비용을 충당부채 적립 등을 통해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ELS 예상 손실액은 KB국민은행 약 9000억원, 신한은행 약 3500억원, 하나은행 약 3000억원 등이다.

이로 인해 KB금융의 1분기 순이익은 1조2101억원으로 1년전보다 19.2% 줄어든 것으로 전망됐다. 4대금융지주 가운데 순이익이 감소폭이 가장 크다.

신한금융의 1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1조3880억원에서 1조3173억원으로 5.0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하나금융은 1조1022억원에서 9593억원으로 12.96%, 우리금융은 9137억원에서 8272억원으로 9.47%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하나증권 최정욱 애널리스트는 "1분기 중 경상 실적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율 배상 규모가 각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KB금융과 신한지주, 하나금융은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부동산PF 충당금 적립, 상반기 실적 개선 어려워

특히 전문가들은 4대 금융의 실적개선이 상반기까지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5월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한 은행은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저축은행·캐피탈·증권사 등 제2금융권은 추가 충당금 적립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한국은행은 고위험 PF 사업장의 익스포저 전체가 부실화하는 경우, 14.1% 수주인 저축은행 자본비율이 12.6%까지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고위험군 PF 사업장 시공사의 부실이 다른 사업장까지 전이되는 경우 11.4%로 낮아지는 것으로 전망했다. 비은행권의 경우, 부동산 PF 고위험 노출액 비중이 높아 향후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하락 및 충당금 적립에 따른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한화오션

해상풍력·플랜트 인수 "올해 매출액 1조 목표"

한화오션은 ㈜한화로부터 해상풍력과 플랜트 사업을 넘겨받는 것과 관련해 "2024년 매출 1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한화오션은 또 두 사업에서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제공자)로 도약할 것"이라며 "향후 수년간 지속적인 매출 확대와 이익 증가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앞서 ㈜한화는 전날 계열사인 한화오션에 건설 부문의 해상풍력 사업과 글로벌 부문의 플랜트 사업을 양도한다고 공시했다.

해상풍력과 플랜트 두 사업의 거래 가액은 총 4000억원 수준이다. 이 거래 가액은 ㈜한화와 한화오션이 각각 선임한 회계법인의 가치평가에 따라 산정됐다.

한화에 따르면 해당 회계법인은 풍력 사업의 경우 풍력발전 파이프라인 10곳에 대한 공사 수익과 매출원가, 사업추진비·회수액, 사업단계별 타당성 등을 분석하고 현금흐름을 반영했다.

플랜트 사업 가액도 국내외 설계·조달·시공(EPC) 공사 실적을 바탕으로 기존 매출액과 향후 5년간 추정 평균 매출·지분가치 등을 종합해 산정했다.

한화오션은 시너지 효과를 통해 두 사업의 경쟁력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한화의 기존 건설 부문 내 풍력발전 사업은 현재 2.3기가와트(GW) 규모의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한화오션의 풍력발전 터빈 설치선과 해상변전소 역량을 결합해 해상풍력 밸류체인(가치사슬)을 완성할 경우 충분한 수익성이 기대된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플랜트 사업은 지난해 매출 6800억원, 수주잔고 9500억원 수준을 보였다. 화학과 발전, 산업·환경 등 캡티브(계열사) 물량도 확보된 상태다.

/양성운 기자 ysw@

'유류세 인하' 추가연장 확실시… 인하율 확대여부 주목

국제유가 배럴당 90달러 육박
최상목 "인하조처 추가연장 검토"

국제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향하는 등 에너지발 물가 불안이 예고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대응책 마련을 서두른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조처(석유류 탄력세율 적용)의 추가 연장이 거의 확실시된다. 단,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유류세 '인하율'의 확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3대 원유 가운데 중동두바이유와 북해산브렌트유 선물이 최근 배럴당 89달러 선을 넘어서며 90달러대 진입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이다. 두바이유는 지난 3일 배럴당 89.63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브렌트유도 4일(현지시간) 89.5달러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

미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선물 역시 배럴당 85달러를 뛰어넘었다. 3대 원유값은 모두 불과 1개월 만에 10달러 가까이 올랐다.

4일 오후 2시30분 기준 국내 주유소 평균 소매가는 전일대비 리터(ℓ)당 3.51원 오른 1652.21원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1년 4분기 이후 석유류에 붙는 유류세 인하조처를 총 8차례 실시했다. 다만 인하폭은 시기별로 달랐다.

휘발유 기준 1년 넘게 25% 인하폭을 유지 중인데 37% 적용 당시에 비해 소비자 체감이 덜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또 국제유가의 가파른 상승세에 따른 물가 자극을 완화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국제유가 불안이 지속된다면 유류세 인하를 4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인하조처 연장을 시사했다. 하지만 인하폭의 확대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일회용 명품 어메니티’ 사라진 호텔

〈편의용품〉

“숙박비 내려야” vs “시장질서 붕괴”

〈소비자〉 〈업계〉

숙박업 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국내 호텔업계가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재활용법에 따라 숙박업소에서 일회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환경보호를 위한 정부의 조치지만 호텔업계는 숙박비를 내리라는 누리꾼들의 불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사전에 고객들에게 공지를 했기 때문에 현재까진 큰 문제는 없다면서도 숙박비에 대한 부분은 예민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자원 절약·재활용 촉진 법률 시행
객실 50개 이상 숙박업소 대상
칫솔·면도기 등 5종 무상제공 금지

4일 호텔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숙박업소에서 일회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됐다. 이 법은 폐기물 발생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자는 게 골자다.

이에 객실이 50개 이상인 숙박업소는 샴푸,린스,칫솔,치약,면도기 5종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상황이 이러자 호텔업계는 조선호텔, 한화호텔, 신라호텔 등 국내 대형 호텔 기업들은 일회용 어메니티를 대용량 용기나 다회용 용기로 대체했다.

나머지 칫솔이나 치약은 고객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공지와 함께 부득이할 시 편의점, 마트 등 별도 시설 위치를 전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에선 이같은 환경 정책을 두고 다양한 시선이 존재한다.

“어메니티 때문에 호텔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은데, 환경 정책 때문이라면 숙박비를 낮춰야 할 것”, “사정이 있는 고객들에 대한 대안도 없는 것같다”, “어메니티도 숙박비에 포함 된 것이기 때문에 숙박비 영수증에 어메니티 포함 가격과 미포함 가격을 명시해야 한다”라는 등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도 일회용품 규제가 드디어 시행된다. 환경 적인 부분은 정부가 이렇게 적극 나서야 한다”, “이미 인도, 베트남 등 우리나라보다 환경이 취약한 나라도 호텔 내 일회용품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다회용품을 각자 소지하는 게 당연한 일”, “현재의 편의성만 추구하면 안된다” 등의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결국 해외 등 이미 추진 중인 규제로 우리나라도 환경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

일각에선 “플리스틱 빨대는 금지하고, 뚜껑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호텔에서 이를 바꾼다고 탄소감축이 눈에 띄게 될까. 오히려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규제해라. 사용량이 문제가 아니라 생산이 더 문제다”, “숙박은 고객이 하고 환경 보호한다고 생색은 정부가 하냐”라는 등의 정부의 환경보호 명목에 대한 의구심을 품은 의견도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국내 호텔 업계가 조치한 다회용기, 대용량 디스펜서에 대한 위생문제도 수면위로 따라왔다.

리필 시 이물질이 투입되거나 통의 살균과 소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위생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소비자·업계, 환경보호 취지 공감
다회용기 대체… 산업현장 변화
인식개선, 위생관리 등 과제 산적

소비자 A 씨는 “코로나 같은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나. 코로나를 겪은 국민들은 모두 사실 위생에 대한 불안이 있는 상태다. 다회용기, 대용량 디스펜서를 사용할시 모든 업체들이 재개봉이 불가능한 논-리필러블 용기를 사용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호텔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부대 용품을 따로 가져 오는 고객은 많지 않다. 그만큼 호텔 내부에서는 어메니티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많다는 뜻. 실제로 현장에서 찾는 고객들이 많다. 근처 편의점 위치를 알려드리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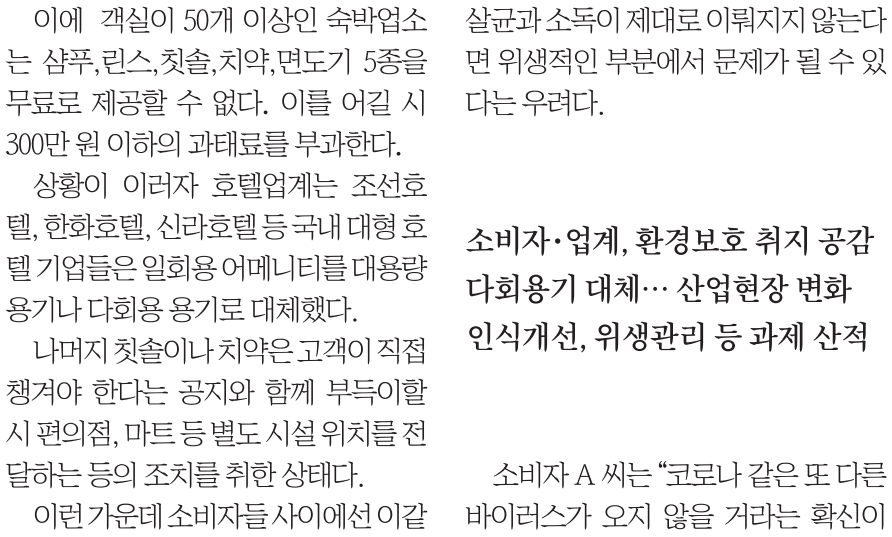
또 다른 호텔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과거부터 시행 예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용량, 다회용기로 대체해 진행하고 있다. 부득이하게 안가져온 고객은 구매를 해야 한다고 전달한다. 현장에서 불만을 표하는 고객도 더러 있지만 환경적인 부분이라는 취지에 설명을 하면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텔 숙박비에 대한 부분은 예민하게 추이를 지켜보는 상태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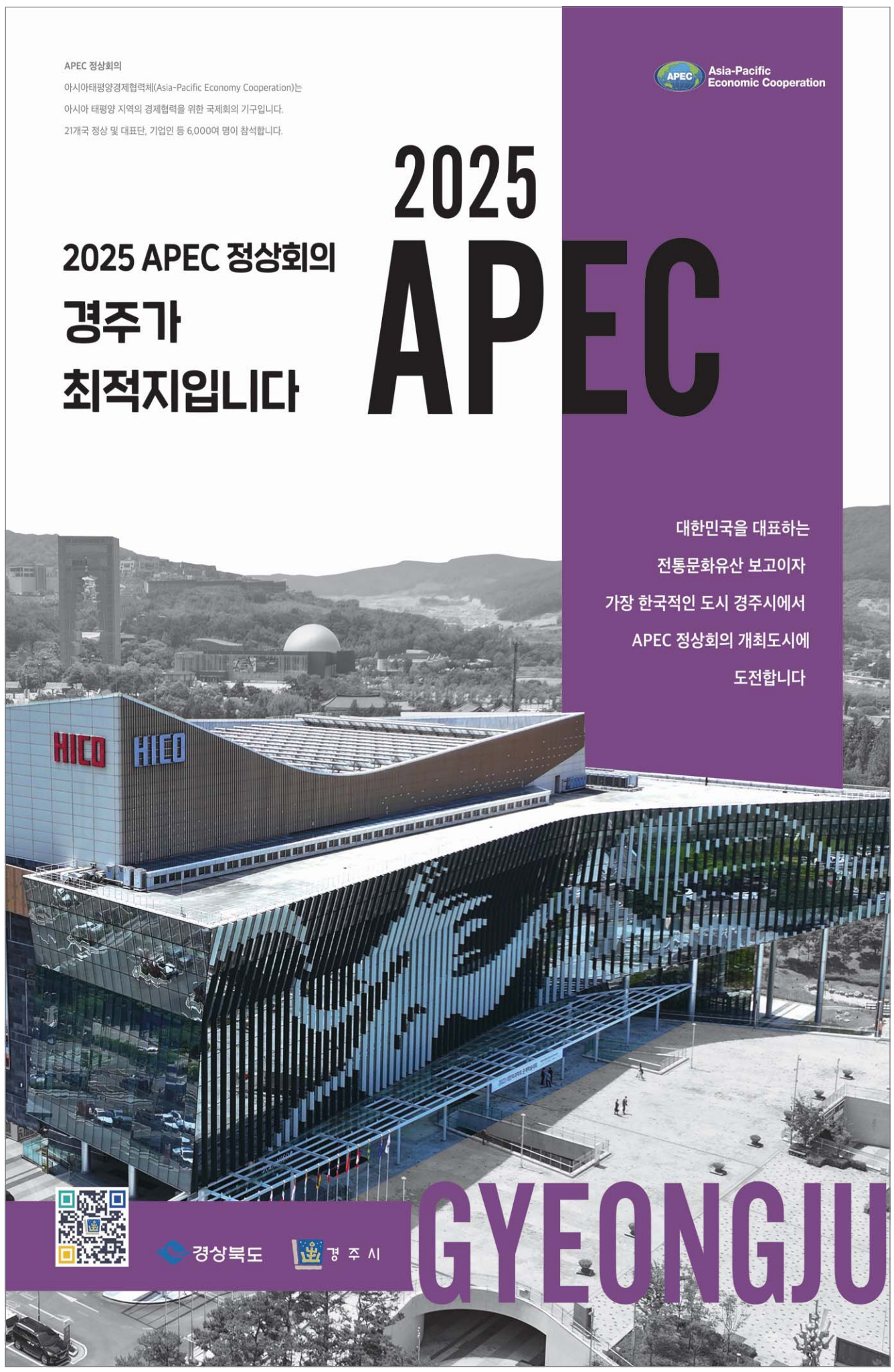
한 호텔 기업이 단독으로 환경 취지에 맞춰 숙박비를 일괄 내리겠다고 선포하게 되면 다른 기업들은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것.

호텔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 호텔기업이 이번 법 시행을 명분으로 숙박비를 내리면 다른 업계는 따라갈 수 밖에 없다. 고객들의 불만이 쏠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호텔업계 시장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고 더 나아가 각 실적과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지난달 29일부터 객실 50개 이상 숙박업소 내 일회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됨에 따라 호텔업계는 다회용기 제품을 도입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진은 시그니엘 호텔이 사용하는 다회용기 제품. /시그니엘 인스타그램 갈무리



특정 정당·지역색 보단 공약… '젊은 동탄' 표심은 어디로

총선 유세현장 가보니

경기 화성을

1강 공영운 맞서는 한정민·이준석
유권자 '교통문제 해결' 가장 원해
세 후보, 버스증차·트램 등 내세워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뉴시스

경기 화성을은 '동탄2신도시'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지역구 평균연령이 34.5세로 254개 지역구 중 가장 젊은 도시다. 그렇기에 특정 정당이나 지역색, 색깔론 등을 기준으로 두지 않고 현안에 따라 표심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3일 〈메트로경제신문〉은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는 경기 화성을 지역구를 찾았다.

화성을은 동탄 지역으로, 경기도의 '반도체 벨트'의 핵심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국민의힘은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인 한정민 후보를 영입했고, 민주당은 현대차 사장 출신 공영운 후보를 영입했다. 여기에 '젊은 표심'을 노리고 이준석 후보가 참전했다. 이같은 치열한 공방에 화성을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지역구로 부상했다.

경기 화성을은 지난 19대 총선부터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만큼, 민주당세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살펴봐도 공영운 후보의 지지도가 가장 높았다. '1강' 공 후보를 한정민·이준석 후보가 각자의 강점을 활용해 뒤쫓는 양상인 셈이다.

실제로 이데일리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2일 무선 ARS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 후보는 44.5%, 한 후보는 20.7%, 이 후보는 28%를 얻었다. TV조선과 조선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1~2일 무선전화면접을 실시한 결과 공 후보 43%, 한 후보 18%, 이 후보 28%로 조사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일단,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은 '교통문제 해결'을 가장 원하고 있다. 동탄호수공원에서 만난 시민들은 입을 모아 "서울 가는 버스가 모자란다" "GTX가 개통됐지만 버스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세 후보 모두 버스 증차·트램 개통·남사터널 추진 등을 입모아 약속했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표심은 어디로 향할까. 아이와 호수공원을 산책하던 30대 여성은 "원래 민주당만 찍는다. 그런데 이번 후보는 현대차 사장 출신이라 더 마음이 간다"고 했고, 또 다른 40대 남성은 "후보들 공약은 비슷한 면이 많던데, 정권심판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답했다. 호수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던 80대 남성은 "나는 국민의힘 후보를 뽑을 것"이라며 "이 지역 보수표가 분열돼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인지도가 높은 이준석 후보를 주목하는 분위기도 엿보였다. 몇몇 시민들은 호수공원 인근 상가 앞에서 유세를 하던 이 후보 측 선거운동원에게 악수를 청하거나, '파이팅'을 외치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호수공원을 지나던 한 40대 여성은 "이준석 후보 공약이 세세해서 마음에 들지만, 당선 가능성은 잘 모르겠어서 고민 중"이라는 말을 남겼다.

한편 공 후보는 유권자들을 향해 "말보다 실력으로 해내겠다"면서 "검증된 경제 전문가이자 정치 신상품인 제가 '정권 심판'과 '동탄 프리미엄'을 완성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한정민 후보는 "저에게는 30억짜리 집도, 전국적인 인지도도 없지만, 동탄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탄 발전의 청사진은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고, 이준석 후보는 "동탄이 배드타운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경기 남부의 중심에서 허브도시로 발돋움할 것인지 이번 선거의 결과에 달려 있다"며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송도, 교육·교통문제 해결해 정주여건 강화"

총선, 이 후보가 궁금하다

김 기 흥 인천 연수을

"유권자, 젊고 힘 있는 정치인 원해"
외국인·국내 투자로 일자리 마련
도시 빈 공간에 복합상업시설 유치

4·10 총선에 출마하는 김기흥 국민의힘 인천 연수을 후보는 지난달 29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송도 유권자들이 '젊고 힘 있는 정치인'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캠프 제공

"송도 유권자들은 '젊고 힘 있는 정치인'을 원하고 있다."

4·10 총선에 출마하는 김기흥 국민의힘 인천 연수을 후보는 지난달 29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보수의 표심이 결집하고 있고, 선택을 유보해온 중도층이 결국 김기흥을 선택하는 이유는 명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기흥 후보는 10년 이상 송도에 거주하며 직장까지 통근한 '송도 아빠'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정치에 입문했을 때부터 함께해왔다. 그리고 현재는 치열한 당내 경선을 거친 뒤, 본선에서 지역구 현역인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치열하게 맞서고 있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는 통합과 헌신, 희생을 통한 쇄신을 누가 폭넓고 깊이 있게 가져가느냐의 싸움"이라며 "오만하면 절실하지 못하며, 절실하지 못하면 통합도,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권자들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분노조장 정치와 무책임한 정치에 실망도 깊다"며 "결국 김기흥이라는 사람이 호응을 얻은 것은 책임정치와 송도의 발전을 명확하게 제시한 점이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통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초심, 진심, 뚝심으로 간직하며 더 많은 유권자를 찾아가는 것이 승리를 위한 남은 과제"라고 각오를 전했다.

김 후보는 송도의 정주 여건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가 자족 기능이 있기 위해서는 교육·교통 등 정주 여건이 중요한데,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족함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송도 내 '일자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송도를 국제도시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다. 외국인 투자와 국내 투자를 통한 일자리를 꾸려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송도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적·상업적 수요를 채워주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도시의 빈 공간에) 주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계획에 없던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경우가 있다. 이런 곳은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상업시설을 유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수도권 위기론' '총선 위기론' 등이 언급되는 데 대한 김 후보의 생각을 들어봤다. 그는 "송도는 젊고 역동적인 곳이자, 변화에 대한 바람이 큰 곳"이라며 "진보냐, 보수냐의 관점보다 기존 정치인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 지역을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결코 오만한 쪽에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 민주당의 오만하고 위선적인 공천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인물경쟁력에 대해 우위를 점한 만큼 각 후보들이 '선민후사'라는 정신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연수을 유권자들을 향해 "초심, 진심, 뚝심을 잊지 않고 국민과 송도 주민을 섬기고 싶다"며 "정부가 국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보탬이 되고, 송도와 인천이 수도권이라고 받는 역차별을 해소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힘을 쏟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서예진 기자

유권자 79% "반드시 투표"
22% "후보·정당 미결정"

4·10 총선 사전투표 하루 전인 4일, 유권자 10명 중 8명가량이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권자의 78.9%가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달 18~19일 실사한 1차 조사 결과에 비해 2.4% 증가한 수치다. 투표 참여 의향이 있는 유권자 중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2.7%였다.

투표할 후보·정당 결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모두 결정했다'는 응답은 67%, '모두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응답은 22%로 조사됐다. '후보자만 결정했다'는 응답은 1.8%, '정당만 결정했다'는 응답은 8.6%다. 지역구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고려한 사항은 '소속 정당'이 27.6%, '정책·공약' 27.4%, '능력·경력' 19.7%, '도덕성' 18.2% 등으로 나타났다.

비례정당 선택 시 고려한 사항은 '정당의 정책·공약'이 27.7%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는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20.3%),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 소속 정당'(19.4%), '지지하는 정당과 긴밀하게 연관된 정당'(11.7%) 순이었다.

/서예진 기자

건강한 지구를 위한
첨단 기술의 노력

SK하이닉스가 앞장서겠습니다

친환경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SCC* 멤버 가입**
유해물질 관리 역량을 인정하는 **IECQ QC 080000* 인증 획득**
탄소배출 저감 제품군에 수여하는 **탄소발자국 인증 획득**
반도체 폐기물 감축을 실현하는 **SSD 재활용 활동**
멸종 위기 생물 보호를 위한 **생물다양성 경연 개최**

*SCC (Semiconductor Climate Consortium) : 반도체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결성된 글로벌 협의체
*IECQ QC 080000 :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 의해 발효된 유해물질 관리 국제표준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hynix

‘천원의 아침밥’엔 공감… 범죄 대응엔 ‘처벌’ vs ‘예방’

〈與〉 〈野〉

4·10 총선 공약 비교

❺ 복지, 의료, 치안

각 정당이 내놓는 공약 중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약은 무엇일까. 유권자들의 지갑을 지켜주는 것은 민생경제 공약이고, 유권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은 사회 공약이다. 이에 정당들은 앞다퉈 국민에게 병원에 갈 때 지갑 걱정을 하지 않고, 학생들이 아침을 굶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한다.

〈메트로경제신문〉은 4·10 총선 6일 전인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복지, 의료, 치안 분야의 공약을 살펴봤다. 양당이 비슷한 공약을 낸 경우도 볼 수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양 정당이 다른 시각을 갖고 공약을 마련했음을 알 수 있었다.

◆與野, 한목소리로 ‘천원의 아침밥’ 확대 약속… 단가인상·대상 확대 등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복지 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었다. 이는 고물가로 끼니를 걱정하는 대학생들에게 아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민건강통계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아침 식사 결식률은 31.7%이며, 에너지 소모가 가장 많은 19~29세는 53%가 아침을 거른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한정적인 운영으로 아쉬움이 나오던 차였다.

국민의힘은 대학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참여 희망 대학을 모두 지원하기 위해 정부지원단가 2배 인상 등을 통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모든 대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하고 단가 인상도 공약에 넣었다.

양당의 공약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경로당 주7일 점심 제공 ▲학교밖 청소년 및 가정밖 청소년 실태파악·자립지원 확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청년자립준비학교’ 도입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지급대상 확대 ▲악질적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후추징 ▲다문화가족 자녀 돌봄 지원 강화 등을 공약집에 넣었다.

민주당은 ▲전국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 도입 ▲양육비 채무자 관련 강력한 이행정책 마련 ▲주4일(4.5일) 도입 지원 ▲초등학교부터 방과후학교 단계적 무상화 추진 ▲연차휴가 저축제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초등학생 과일간식사업 복원·확대 등이 복지 분야 공약으로 올라와 있다.

◆양당의 ‘의료 분야’ 공통공약은?… 임플란트 추가 지원·비만 관리·지역의대 신설 등

의료분야 개혁에서 양 정당의 공통공약은 요양병원 관련 정책과 지역의대 신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노령층 임플란트 추가 지원(2개→4개), 1형당뇨 지원 확대, 전국민 비만 관리, 중증·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있다.

지역의대 신설의 경우 의사를 증원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에 양 당에서 모두 공약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이며, 임플란트 추가 지원의 경우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또 중증 난치성 질환인 1형당뇨 질환자는 혈당 관리뿐 아니라 생명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인슐린 주사, 소모성 1회용 주삿바늘, 알콜솜, 혈당검사지, 채혈침 등 다양한 의료장비가 필요해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부담금만 매년 300만~400만원 이상 지출된다고 한다. 1형당뇨 질환자가 있는 가정은 상당한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에, 양 정당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원 약속을 한 셈이다.

전국민 비만 관리 공약도 눈에 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비만율은 37.2%라고 한다. 20대를 제외하고는 전연령이 30~40%대를 오가는 수치를 보여줬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비만 합병증 치료, 생산성 저하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1년 기준 약 16조원이라고 추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비만치료제 급여화, 민주당은 전국민 비만 예방 관리체계 구축을 공약에 넣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국확대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운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혜택 400만명까지 확대 ▲지역 공공병원 육성 ▲50대 이상 대상포진 백신 접종비 지원 ▲청년·학생 정신건강검진 주기 단축, 서비스 지원 확대 ▲마약·알코올 등 중독치료 및 재활 인프라 확대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노인대상 ‘주치의 제도’ ▲아동·청소년 마음건강 진단 및 회복지원 ▲공적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구축·활용 ▲노인 대상 재택 의료서비스·통합 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운영 ▲특정 질환에 대한 첨단 로봇수술 건강보험 급여화 등이 공약집에 담겨 있다.

◆한동훈 제시한 ‘한국형 제시카법’ 재등장… 野, ‘묻지마 범죄’ 예방 필요성 강조

귀갓길이 무섭지 않고, 국가가 나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 이는 국가의 치안 역량에서 나온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범죄와 관련해 상당한 시각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이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민주당은 예방에 중점을 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제시한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이는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학교·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다.

한 위원장은 장관 재임 시절 ‘한국형 제시카법’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형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21대 국회 종료를 앞둔 상황이라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국형 제시카법’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 예방 통계시스템 마련, 범죄예방특별법 제정, 흉악범죄 예방을 위한 범죄경력자 관리·감독 강화 등에서 ‘예방’에 초점을 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범죄가 일어나기 전 예방을 통해, 사회적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재범고위험군 관리 강화 및 1:1 전담 등 보호관찰 인력 증원, 재소자에 대한 심리치료·교육 수준 제고, 이상동기범죄 유형화 및 통계 작성, 발생원인 분석 등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흉기 난동 등으로 시민 불안이 가중했을 당시, 민주당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예방책이 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범죄자의 교화와 사회로의 복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이밖에 국민의힘은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자 대상 사기범죄 가중처벌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추진 ▲중대범죄 피해자 ‘안심주소’ 제도 도입 등을, 민주당은 ▲경찰의 현장 순찰 강화·흉악범죄 적극 대응 ▲스토킹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대처·보호 강화 ▲가정폭력 현장 대응조치 강화 등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서예진·김현정·안승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여야 복지·의료·치안 공약 비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복지	▪경로당·노인복지관 주7일 점심제공 확대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단가 2배 인상 등 확대 ▪학교·가정 밖 청소년 실태파악 및 자립지원 확대 ▪대학생 학자금 부담 경감, 기숙사 확충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악질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선지급, 후추징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맞춤형 돌봄체계 확대 ▪다문화 자녀 돌봄 지원 강화, 교육·진로지도	▪모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및 단가인상 ▪전국 경로당 주5일 점심밥상 제공 ▪양육비 불이행, 감치처분 회피 목적 주소 허위신고 제재, 양육비 지급 관련 강력한 이행정책 마련 ▪주4.5일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연차 저축제도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체계 강화 ▪방과후학교 무상화 추진, 방과후학교 법제화 ▪임산부, 초등학생 맞춤형 농식품 정책 확대
의료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운영(~2025.12) 후 확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국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의료인프라 취약 지역의 지역의대 신설 추진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청년·학생 정신건강검진 주기 단축 및 지원 확대 ▪마약·알코올 등 중독치료 및 재활 인프라 확대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 예방 ▪비만치료제 급여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2→4개) ▪중증·희귀질환자 본인부담 최소화	▪노인 대상 ‘주치의 제도’ 및 방문·재택 진료 확대 ▪노인 대상 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운영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진단 및 회복 지원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으로 간병 사각지대 해소 ▪요양병원 입원환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지역의사제, 공공·지역의대 신설, 의료인 증원 ▪의료의 질·안전성 고려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65세 이상 임플란트 추가 지원(2개→4개) ▪전국민 비만 예방 관리체계 구축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부담 완화 ▪신·변종 감염병 백신 개발 생태계 구축
치안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공중협박죄 신설, 공공장소 흉기소지 엄중 처벌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자 범죄 가중처벌 ▪‘범죄수익환수기본법’ 제정 등 범죄수익 박탈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다각적 추진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 등 고위험 범죄요인 관리 ▪범죄피해자 형사소송절차 참여 등 진술권 보장 ▪중대범죄 피해자 ‘안심주소’ 제도 도입 ▪‘재난현장조치 정보시스템’ 구축·운용 ▪전통시장 화재 예방 위한 전기시설 정비 지원	▪범죄경력자 관리·감독 강화로 흉악범죄 예방 ▪청소년 범죄에 대한 예방체계 강화 ▪해외 위난 및 사건사고 예방·대응 체계 선진화 ▪‘묻지마 범죄(이상동기범죄)’ 예방 통계시스템 마련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설비 전수 조사 및 보강 ▪재난안전통신망 체계 강화 ▪데이트 폭력 범죄 법제화 및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스토킹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및 보호 강화 ▪직장 내 스토킹 법적 규제와 대응 매뉴얼 마련 ▪가정폭력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與野 천원의아침밥 지원단가 인상
지역의대 신설·노령층 임플란트 지원

국민의힘 ‘한국형 제시카법’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공약

민주당 ‘묻지마 범죄’ 예방 통계시스템
예방 통해 사회적 피해 줄이려는 취지

‘지지층 결집 위해서라면’… 與野 대표 입 거칠어져

상대방 심판대상 규정… 막말공세
한동훈 “정치 뭣같이 하는 사람들”
이재명 “2번을 찍든지, 집에서 쉬어라”

4·10 총선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여야 수장들은 상대방을 심판 대상으로 규정하며 막말 공세를 퍼부고 있다. 막바지로 접어드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 선명성을 부각하면서 오히려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달 28일부터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라며 막말을 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 유세에서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인거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성동 유세에서도 “정치를 뭣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지난달 30일 경기 부천 유세에선 “수원에서 출마한다는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말을 살펴봐 달라. 초등학생을 성관계의 대상으로 얘기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그 대상으로 비유를 들었다”며 “이런 쓰레기 같은 말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말인가. 삐소리 나오는 말을 하는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지난 1일 부산 연제 지원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 대표는 정작 그런 쓰레기 같은 욕설을 한 형수나, 정신병원에 보낸 형님한테 아무런 사과를 한 바가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한 위원장과 경쟁하듯 연일 격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4일 세종 유세 현장에서 “1번을 찍지 않으면 곧 2번을 지지하는 것”이라며 “‘살만하다’ 싶다면 2번을 찍든지 집에서 쉬어라”고 했다.

해당 발언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비하했다는 논란을 불러왔다. 2번을 찍는 유권자는 투표장에 나올 필요가 없다는 뜻이냐는 반응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재혼가정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가나 정부가 든든한 아버지, 포근한 어머니 같아야 하는데 지금은 의붓아버지 같다. 매만 때리고 사랑은 없고. 계모 같다. 팥쥐 엄마 같다”고 말했다.

/서예진·박태홍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월 11일 오후 각각 충남 홍성군 홍성시장과 고양시 라페스타 거리를 방문해 총선 예비후보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축구도 하나 은행도 하나 카드도 하나

하나뿐인 내편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TV토론회, 막판 변수 부상… '의혹·해명·책임' 공방 줄이어

이재명-원희룡, 'GTX 추진' 설전
무분별 공세… 사실확인 도마위

강경숙, '노란봉투법' 해석 논란

지난 1일 경기 부천시 OBS 경인TV에서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인천 계양을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 힘 후보가 사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제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자의 TV토론회가 연일 열리고 있는 가운데,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은 발언이나 당의 정강정책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하는 후보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TV토론회 중 가장 관심이 쏠린 곳은 직전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전직 국토교통부 장관인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출연해 지난 2일 방송된 인천 계양을 TV토론회였다.

토론회 도중, 이 후보가 지역구에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자 원 후보는 어떤 기관과 협의를 하고 추진했는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인천 계양갑 현역 의원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과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만나서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하다고 다시 말했으나, 직전 국토부 장관인 원 후보는 "사실 확인 다 책임질 수 있겠냐"라고 말하며 허위사실공표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이 운영하는 포털 블로그에는 지난해 6월7일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유동수·이재명 의원, 김현준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어명소 당시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함께 유동수 의원실에서 만나 '인천 지역 현안인 GTX-D Y자 노선 용역 추진현황'에 관해 간담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전북KBS에서 방송한 비례대표후보자 토론에선 '노회찬의 길'을 걷겠다고 주장한 조국혁신당의 강경숙 비례대표 후보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구제법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 해명을 부탁한다"고 질문해 노동계의 격한 반발을 불렀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강화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생책임을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지도록 하는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개정안이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친노회찬 인사로 분류되는 신장식 변호사를 당에 영입하면서 '노회찬의 길'을 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진보·노동 정치의 상징인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끌어오면서, '노회찬 정신'과 정반대되는 질문을 한 것.

나순자 후보는 지난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조국혁신당을 대표해 나온 후보의 질문 내용이 노동탄압으로 자신의 지지율을 유지해온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발언과 똑같다"면서 "노동3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윤석열 정권과 닮아 있어 매우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도 입장문을 내고 "조국혁신당의 노동관이 무엇인지, 노동에 대한 당의 입장과 태도가 무엇인지 책임지는 자세로 밝혀라"며 "조국혁신당의 후보자들이 즐겨 입는 정장의 옷자락으로 노동의 고민과 아픔을 덮으려 하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노동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럴 자신이 없다면 아예 발언을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해당 질문을 한 강경숙 후보는 지난 3일 입장문을 내고 "저는 녹색정의당 나순자 후보에게 정의당에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설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한 것"이라며 "'보수 쪽의 논리가 이런데 뭐라고 논박하면 좋을까요' 이런 취지의 우호적 발언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정치권, 사전투표 독려… "주권 행사해주시길"

윤 대통령·여야 지도부 한목소리
민주당 "국민 거역 정치세력 대항"
국민의힘 "범죄자들을 응징하는 창"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5일과 6일 양일간 실시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극적으로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윤 대통령은 4일 "한 분도 빠짐없이 주권을 행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투표는 주권자의 권리 행사일 뿐만 아니라 책무이기도 하다"고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한동훈 위원장도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254명 모든 후보들이 사전투표 첫날인 내일 투표할 것"이라며 "'사전투표 하면 진다', '투표율이 높으면 진다'는 이야기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찍으면 우리가 된다', '우리가 찍으면 대한민국이 이긴다'만 생각하고 모두 투표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전투표가 불안하다고 안 찍으면 누가 이기겠느냐"며 "1일간 싸우는 사람이 사흘 동안 싸우는 사람 이길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4·10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예상하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 발표로 인해 투표 자체를 포기하기로 마음먹은 여당 지지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이제까지 나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진다는데 진짜 그런 거냐', '내가 한 표 찍는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며 "남들 이야기에 불안해하며 투표장 가지 않거나 명백한 범죄 혐의자들, 잘못하고도 뉘우치지 않고 사퇴도 안 하는 철면피 후보를 찍으면 그건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밀어내는 선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저도 내일 투표할 것"라며 "국민의힘에 주는 한 표가 범죄자들을 응징하는 창이 되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더 개혁적이고 더 혁신적으로 바뀌는 원동력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부산을 찾아 "왜곡되지 않은 정치적 의사가 표명될 수 있다면 정치권력은 국민을 거역할 수 없다"며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고 헌법 1조 1항에 쓰여있지만 정치권력은 언제나 소수의 기득권을 편들고 있다"며 "주권자의 상당수가 주권을 포기했고, 그 포기한 주권만큼을 누군가가 가로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4월 10일 선거가 정치인 간의 승부처럼 보이지만 (승자는)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기는 것은 후보가 아니라 국민이어야 한다"며 "국민을 거역하고,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정치세력에 대항해 이겨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임을 입증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녀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밤낮으로 일하며 고생하지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는 길은 정치가 더 잘 작동하게 하는 것"이라며 "주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변을 독려해야 한다. 남은 시간 주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투표가 곧 내 인생이라는 것을 함께 외쳐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익·김현정·안승진기자 pathfinder@

소상공인 지원 강화… 2.3조 규모 이자환급·대환대출 공급

›› 1면 '신생아 특례대출…'서 계속

소상공인 지원 강화 차원에서는 간이과세자 기준을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과 대환대출 공급 시행을 주요 과제로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의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까지 확대 방안'으로 "약 17만명이 1인당 153만원의 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됐다"며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월에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기업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공매도 금지 및 부작용 해소 위한 제도개선 ▲농식품·과일 할당관세 규정 개정 ▲부담금 제도 전면 정비 ▲재개발·재건축 요건 완화 ▲노후 계획도시 정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전국권 'x-TX' 추진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 권익 증진 ▲맞벌이 부부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외국인 취업 허용 등을 소개했다.

/박정익 기자

국민통합위원회, 청년주거 대책 제안

"폐교부지, 대학 기숙사 건립 활용 中企 전세 보증금·대출 1억 상향"

4개 분야 12개 주요 정책 소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더 나은 청년주거 특별위원회'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대출 대상 주택 보증금 규모와 대출한도 상향, 도심 내 폐교 부지의 기숙사 건립 활용 등 청년주거대책을 제안했다.

김영덕 특위 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를 위한 4개 분야 12개 주요 정책을 이같이 밝혔다.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이번 제안은 '청년의 꿈과 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로, 특위가 학업·취업준비→자립(취업)→결혼·출산 등 청년 생애주기 주거 수요에 따른 맞춤형 정책 대안을 논의하면서 도출됐다.

청년 주거 분야 학계·산업계 전문가 및 국민통합위 청년마당 위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준비 TF와 11차례의 정례회의(주 1회), 부처·이해관계자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은 ▲대학생 주거 안정 강화 ▲취업준비생 등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일하는 청년 주거 지원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4개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대학생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폐교 부지를 기숙사 건립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관련법 정비와 수도권 교통이 편리한 국·공유지에 공공 기숙사 건설 확대, 사립대학에서 기숙사 직접 건립 시 융자 혜택 강화를 제안했다.

취업 준비생 등의 주거 환경 개선 차원에서는 청년 주거 분야 임대 전문 스타트업 등이 청년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불법 건축물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정기 실시,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특히,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대출' 대상 주택 보증금 규모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출 한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청년주거대책을 제안했다. 김영덕 특위 위원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통합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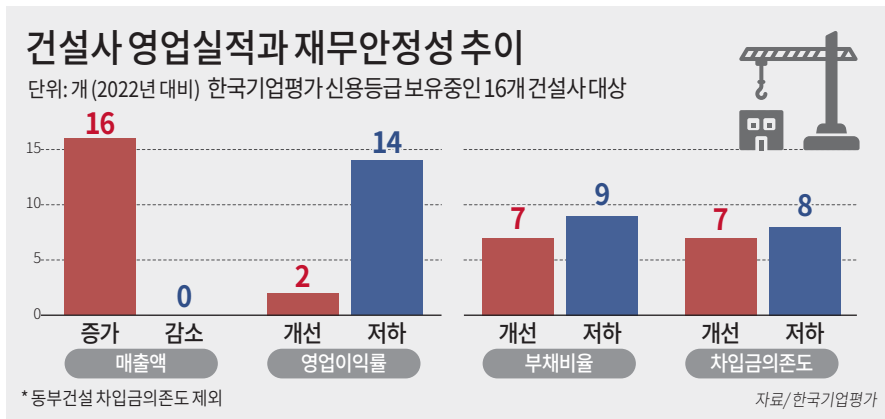
또,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원하는 회사·공장 외부 지역에 기숙사 건립 시 정책자금 융자를 허용하는 방안과 민간의 '특화형 공공임대' 제도를 활용해 맞춤형 공간이 마련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주거시설 공급 확대도 제시했다.

끝으로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위해 신혼부부가 보다 좋은 주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새가족 주택' 시범공급을 제안했다. 새가족 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춘 임대주택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유치원·돌봄센터 등 통합 돌봄시설을 갖춘 '아이돌봄 특화 주택단지' 조성과 결혼·출산에 따라 청년이 선택가능한 임대주택 범위 확대도 제안했다.

/박정익 기자

잠재부실 '미청구 공사' 증가… 건설사 '돈맥경화' 경고등

16개 건설사 작년 매출 87.7조
원가상승에 영업이익률은 반토막
늘어난 매출만큼 미수금 등도 ⬆
현대·대우·현산, 현금여력 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에 미분양이 쌓이면서 건설사들의 미청구 공사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최근 몇 년간 늘어난 매출만큼 미청구 공사와 미수금 역시 절대금액이 증가할 수 있어서다. 미분양 증가가 현금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건설사들의 재무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커졌다.

미청구공사는 공사를 진행하고 발주처에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 미수채권이다. 회계상 자산으로 처리하지만, 발주처가 공정을 완료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돈이라 받지 못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손실로 전환한다. 미청구공사를 잠재 부실로 보는 이유다.

4일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유효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16개 건설사의 지난해 매출은 87조7000억원으로 2022년 대비 13.8% 증가했다. 주택 경기 활황기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늘어난 신규 수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시멘트 및 레미콘 가격 상승, 높은 인건비 등 인플레이션 여파에 영업이익률은 2%로 반토막이 났다.

16개 건설사는 현대건설과 디엘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대우건설, 지에스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신세계건설, 디엘건설, 한양, 코오롱글로벌, 계룡건설산업,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동부건설, 한신공영, 금호건설 등이다.

최한승 한기평 기업2실장은 "2022년 이후 높아진 원가부담을 반영해 최근에 수주한 물량들이 점차 진행사업에 반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원가 상승기 이전의 수주 물량이 높은 비중"이라며 "지연된 공기를 맞추기 위한 돌관공사 영향, 장기 미분양 물량에 대한 대손 반영 등 주택 경기 저하에 따른 사업위험의 영향이 점차 영업실적에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경기 활황기에 늘어난 매출만큼 못 받는 돈도 많아질 수 있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최근 미청구공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어 주택 건설이 많은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미청구공사와 미수금을 분석해 보니 매출액 대비 현금여력이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은 매출액 대비 현금여력이 감소했다.

김 연구원은 "현금여력이 감소한 기업의 공통점은 매출액 대비 내야 할 돈이 감소했다"며 "미리 받은 돈(초과청구공사)을 썼기 때문이거나 매출액이 증가해도 그 이상으로 하도급 비용을 바로바로 지급해 줬다는 얘기로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현금 확보를 위한 자산 매각이나 차입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황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은 매매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 수요만 늘었다. 지방은 매매와 전세 가격 모두 하락했다.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했지만 수요가 바닥을 찍었다고 보기엔 아직 이르다.

착공 역시 2월엔 전년 동월 대비 30% 이상 급감했다. 반면 분양 시장에선 미분양이 계속 늘고 있으며, 지난달 청약에서 미달이 많이 발생했음을 감안하면 3월 미분양도 증가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과거에도 주택경기 활황기에 밀어내기 분양으로 건설사들의 외형은 확대됐지만 경기 악화에 따른 대규모 미분양으로 건설업이 장기 침체를 겪은 바 있다.

최 실장은 "분양성과와 상관없이 공사원가가 투입되면 진행률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는 건설업의 회계처리상 미분양이 쌓여도 매출은 감소하지 않는다"며 "미분양 증가는 공사미수금, 분양미수금 등 매출채권 회수를 지연시키며 재무리스크 현실화의 시그널일 수 있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올해 임기만료' 카드사 수장들, 실적이 연임 분수령

작년 신한·하나카드 실적방어 성공
우리카드는 순익 45%나 줄어 고배

문동권 신한카드 사 장

이호성 하나카드 대표

박완식 우리카드 대표

지난해 세대교체를 단행한 카드사의 수장들이 지휘봉을 잡은지 2년차에 접어들었다. 신한·하나카드는 실적방어에 성공한 반면 우리카드는 반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문동권 신한카드 대표와 이호성 하나카드 대표, 박완식 우리카드 대표 등이 임기 2년차를 맞이했다. 지난해 각 대표별 경영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난 가운데 실적에 따라 희비가 교차하는 모양새다. 세 대표 모두 오는 12월 공식 임기가 끝나는 만큼 올해 실적이 연임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신한카드의 순이익은 6206억원이다. 전년(6414억원) 대비 3.2% 감소했다. 금융지주계열 카드사의 순이익이 평균 11.5%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다. 이어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8839억원으로 1년새 57.8% 증가했다.

문 대표 취임 후 리스사업 부문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신한카드가 리스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6895억원으로 전년(5179억원) 대비 33.1% 증가했다. 본업인 신판 결제를 통한 수익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효율성에 방점을 둔 전략을 채택했다는 설명이다.

올해는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문 대표는 취임사에서 디지털 역량 강화를 핵심 과제로 손꼽은 바 있다. 지난달 신한카드는 사업 영역에 AI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AI 5025'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나카드는 지난해 해외여행객 확보에 성공했다. 여행 특화카드인 '트래블로그'를 앞세워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고 해외신판잔액을 높였다.

업계에서는 이 대표가 여행업종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트래블로그 홍보에 집중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여행은 하나카드'라는 공식을 만들기 위해 입지를 다진 것.

하나카드의 지난해 순이익은 17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 감소했다. 단, 4분기 순이익만 놓고 보면 1년 사이 65.5% 증가했다. 리더로서 이 대표의 성패여부는 지난해의 호조세를 올해까지 이어갈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우리카드 박 대표는 취임 첫 해 고배를 마셨다. 2023년 우리카드의 순이익은 1120억원으로 전년 대비 45.3%나 줄었다. 아울러 해외여행객 확보를 위해 출시한 '트래블월렛'도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카드의 직불·체크카드 해외이용금액은 5455억원이다. 전년 대비 13.1% 증가했다. 반면 여행특화카드를 운영하지 않았던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의 체크카드 해외이용금액도 각각 11.6%, 16.2%씩 증가했다.

독자결제망 구축은 가시적인 성과로 분류된다. 우리카드의 지속 가능 성장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올해 우리카드가 마케팅확대 및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LCC) 출시 등 신사업속도를 높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최근 카드사 대표들이 연달아 연임에 성공하면서 안정성에 방점을 찍는 추세지만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수익 증감에 따라 임기연장때 희비가 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보험료 내리자 손해율 상승… 車 보험 적자전환 우려

올 1~2월 대형 5개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손해율 평균 80.5%
전년 동기 대비 2.3%포인트 ⬆

연초부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하면서 손해보험업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보험료 인하로 손해율에 추가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동차보험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대형 5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80.5%를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78.2%) 대비 2.3%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손해율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다. 통상 보험업계에서는 사업비를 고려한 통상적인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을 80%로 추산한다.

보험사별로는 현대해상이 78.7%에서 83.2%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삼성화재는 79.2%에서 80.3%, DB손보가 78.0%에서 79.3%로 상승했다. KB손보는 78.0%에서 80.5%, 메리츠화재가 77.3%에서 79.1%로 올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년도 보험료 인하 및 지난 2월 폭설 등 계절적 요인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손해율이 소폭 상승했다"며 "3월에도 3·1절 연휴 및 봄철 행락객 증가에 따른 운행량 증가와 맞물려 손해율 악화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올해 자동차보험료 인하, 정비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손해율이 추가적으로 악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보험료 인하로 추가 손해율 상승이 점쳐지면서 적정 손해율을 넘겨 올해 자동차보험이 다시 적자전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자동차보험은 적자를 기록해오다 지난 2021년을 기점으로 흑자전환한 바 있다. 2018년 7237억원, 2019년 1조6445억원, 2020년 379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1년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이동량 감소 영향으로 자동차보험은 흑자전환했다. 2021년 3981억원, 2022년 4780억원, 지난해 상반기 5559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유토이미지

손보사들은 흑자전환에 성공하면서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경감 차원에서 자동차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했다. 지난 2022년 4월 1.2~1.4%에 이어 2023년 2월에도 2.0~2.1% 수준으로 자동차보험료를 내렸다.

올해 역시 지난 2월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3% 인하하면서 인하 폭을 키웠다. 2월 책임개시계약부터 인하된 보험료는 앞으로의 손해율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김주형 기자 gh471@

하나은행

자금 2배 저금리 대출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하나은행이 중소 수출기업 후세메닉스에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1호 보증서를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수출패키지 우대금융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수출자금을 최대 2배 한도로, 저금리(최대 0.7%포인트 인하)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이를 위해 무역보험공사와 하나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금융공급 업무협약을 맺었다. 5대 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총 2조2000억원 규모로 이같은 우대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수출 중소·중견기업과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업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K-배터리, EV 수요 둔화에 활로 모색… ESS 생태계 키운다

〈에너지저장장치〉

LG엔솔, 美 원통형·ESS 본격착공
삼성SDI, 라인업 확대 시장 공략
"中 경쟁 가능한 원가 경쟁력 확보"

LG에너지솔루션의 애리조나주 에너지저장시설 일러스트. / LG에너지솔루션

국내 배터리 업계가 이차전지 생태계 확장에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을 개척하여 전기차 수요 정체기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가 ESS 사업을 통해 전기차 산업 침체기 속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ESS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저장이 어렵고 사용 후 없어져 버리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주요국들의 탄소 중립 목표에 따라 핵심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에너지 시장조사기관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에 따르면 양수 발전소를 제외한 글로벌 ESS 설비 규모가 지난 2022년 43.8GW(기가와트)에서 2030년 508GW로 1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업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ESS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미국은 7개 주정부에서 ESS 보급 목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장 성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신근 LG에너지솔루션 ESS전지 기획관리담당은 지난 1월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ESS(에너지저장장치) 시장은 미국 지역 중심으로 전년보다 30%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애리조나에 총 7조2000억원을 투자한 원통형·에너지저장장치(ESS)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전용 생산 공장을 착공했다. 17GWh(기가와트시) 규모로 건설되는 ESS 전용 배터리 공장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독자 개발한 파우치형 LFP 배터리가 생산될 예정이다. 지난 2022년에는 미국 NEC에너지솔루션 지분을 인수해 ESS 시스템 구축 사업에 뛰어드는 등 ESS 사업 기획부터 설치·유지·보수 등 역량 강화에 나섰다.

삼성SDI는 SBB(삼성 배터리 박스)를 비롯한 ESS용 배터리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공략 중이다. SK온 역시 ESS 사업 진출을 공식화한 후 북미 지역에서 'IHI 테라선 솔루션'과 손잡고 ESS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각 사의 ESS 부문 실적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ESS 사업 부문에서 2조원이 넘는 매출에 100억~200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냈다. 전년에는 ESS 부문에서만 약 2000억원의 적자를 냈으나 흑자전환에 성공한 것이다. 삼성SDI는 지난해 상반기 ESS 부문에서 영업익 68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영업익인 440억원 대비 55% 성장했다.

다만 ESS 시장에서 중국기업들의 저가 공세가 강력해 점유율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ESS용 배터리셀 출하량 1~9위는 모두 중국 업체가 차지했다. CATL과 비야디(BYD), EVE에너지가 1~3위를 기록했고 REPT, 하이티움(HITIUM), 고션(GOTION) 등이 뒤를 이었다.

SNE리서치는 "한국 기업도 2026년 북미 지역에 ESS용 LPF 배터리를 양산해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재도약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북미 현지 생산의 이점과 현지 생산 공급으로 희망하는 고객이 많이 있지만, 가격 측면에서 중국업체와 경쟁이 가능한 수준의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LG엔솔, 7.2조 투자 美 배터리 공장 착공

애리조나 주지사 참석 설명회
원통형 46시리즈·ESS LFP 생산

LG에너지솔루션 애리조나 공사 현장에서 양사 관계자 및 주정부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병수 LG에너지솔루션 애리조나 생산·기술 총괄, 로빈 사히드 애리조나 토지국장, 김정수 LG에너지솔루션 소형 생산센터 상무, 마이크 굿맨 피닐 카운티 의장, 오유성 LG에너지솔루션 소형전지사업부장 전무, 케이티 홉스 애리조나 주지사, 김형식 LG에너지솔루션 ESS전지사업부장 상무, 산드라 왓슨 애리조나 상무국 사장 겸 CEO, 나희관 LG에너지솔루션 애리조나 법인장 상무, 줄리아 휘틀리 퀸 크릭 시장, 오원규 LG에너지솔루션 인프라 센터장 상무, 크리스 카마초 그레이터 피닉스 경제 위원회(GPEC). /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 미국 애리조나주 신규 원통형 및 ESS(에너지저장장치) LFP 배터리 생산 공장이 본격 착공을 시작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애리조나주 첫 원통형·에너지저장장치(ESS)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전용 생산 공장 건설현황 관련 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했다고 4일 밝혔다.

투자금 총 7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애리조나 공장은 향후 전 세계 시장 중 가장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되는 북미 지역에 건설되는 두 번째 단독 공장이다. 또한 원통형, ESS의 '첫 전용 생산 공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애리조나 공장은 원통형 배터리 36GWh(기가와트시), ESS LFP 배터리 17GWh 규모로 각각 건설될 예정이다. 총 생산 능력은 53GWh에 달한다.

애리조나 원통형 배터리 공장에서는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전기차용 46시리즈 배터리가 생산될 예정이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하반기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 원통형 4680 배터리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글로벌 주요 배터리 제조사 중 가장 앞선 생산이다.

총 17GWh 규모로 건설되는 ESS 전용 배터리 공장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독자 개발한 파우치형 LFP(리튬인산철) 배터리가 생산될 예정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 ESS 시장이자 클린에너지 정책에 힘입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내 현지 생산을 통해 물류, 관세 비용 절감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들의 요구에 즉각적인 현장 지원과 관리 서비스 진행 등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미국 현지 고객사들과 전략적 파트너십 또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고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높은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기술리더십 기반의 압도적 제품 경쟁력으로 고객경험을 극대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포스코인터, 유망 中企 해외 판로 연다

2024 글로벌 수출상담회 개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지원과 소재 공급망 안정화에 나선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아시아, 유럽, 북미 등 현지 6개 국가에서 60여 개 중소벤처기업이 참여하는 '2024 글로벌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글로벌 종합사업회사로서 국가의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유망 중소벤처기업과 선순환 산업생태계를 함께 조성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전략이다.

올해에는 총 8개의 국내 대외기관들과 협업하여 참여기업과 프로그램 규모도 작년 대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상담회에서 발굴된 잠정바이어와의 일대일 방문 미팅까지 연계하여 참여기업들이 더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전략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국내 친환경 분야의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지난해 3차수에 걸쳐 운영된 해당 수출상담회에서 참여기업들은 50여 개의 바이어들과 90여 건의 실무 미팅을 진행한 결과, 총 11건의 NDA 및 MOU를 맺었다. 이 중 한 기업은 유럽 신재생에너지 선도기업 및 폴란드 국영회사와 NDA를 맺고, 올해부터 샘플 공급을 목표로 실무적인 기술 미팅까지 신속하게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기금의 추가적인 출연도 올해 검토 중이다. 지난해까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출연한 누적 기금은 총 433억원에 달한다.

해당 기금은 ▶기술개발/R&D ▶생산성 향상 설비투자 ▶해외 판로 개척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지금까지 총 343억 원이 집행되어 145개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지원되었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 "물걸레가 알아서 세척·살균까지"

'비스포크 AI 스팀' 본격 판매

삼성전자가 국내 최초로 스팀 살균 기능을 탑재한 '비스포크 AI 스팀' 로봇청소기를 본격 판매한다. 삼성전자는 4일 홈쇼핑 등 라이브 방송을 통해 '비스포크 AI 스팀' 판매 확대에 나선다. '비스포크 AI 스팀'은 청소기 한 대로 먼지 흡입은 물론 물걸레 청소와 자동 세척, 스팀 살균까지 해주는 로봇청소기다.

특히 국내 최초로 물걸레 스팀 살균 기능과 고도화된 AI 기능을 탑재해 물걸레 냄새와 세균 번식을 최소화한다. 물걸레를 1차로 고온의 스팀과 물로 자동 세척한 뒤, 2차로 100℃ 스팀 살균을 통해 물걸레의 대장균 등 각종 세균을 99.99% 없애주며, 55℃ 열풍 건조로 물걸레를 말려 냄새와 위생 걱정도 덜어준다.

물걸레는 170rpm(1분에 170회 회전)의 빠른 속도로 회전해 바닥 오염과 찌든 때를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청소 중 바닥 오염 구역을 인식하면 알아서 청정스테이션으로 돌아와 스팀으로 물걸레 고온 세척 후 데워진 물걸레로 오염 구역을 한 번 더 집중 청소해 준다.

삼성스토어 청담점에서 '비스포크 AI 스팀'. /삼성전자

AI 기능은 더 진화했다. 초음파 센서 등 총 5개의 센서로 바닥 환경을 감지하는 'AI 바닥 인식' 기능으로 마룻바닥과 카펫을 구분해 맞춤으로 청소한다. 마룻바닥은 물걸레로 청소하고, 카펫의 경우에는 높이에 따라 물걸레를 아예 분리할지 또는 들어올려 청소할지를 판단해 카펫이 젖거나 오염되지 않게 해준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르노코리아, 이달 2.9% 저금리 할부 지원

아르카나·QM6 구매자 대상

사명과 엠블럼, 차명 변경과 함께 새롭게 거듭는 르노코리아가 4월 한달 간 저금리 할부 지원에 나선다.

르노코리아는 '뉴 르노 아르카나(구 XM3)'와 '뉴 르노 QM6' 구매자를 대상으로 4월 한달 간 2.9% 저금리 할부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르노코리아는 전날 사명을 기존 '르노코리아자동차'에서 '르노코리아'로, 공식 엠블럼을 다이아몬드 형상의 '로장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르노코리아는 로장주 엠블럼을 적용한 '뉴 르노 아르카나'와 '뉴 르노 QM6'를 공개했다. 르노코리아는 운전자의 안전과 풍요로운 일상을 위해 많은 변화를 거친 뉴 르노 아르카나에 고객 맞춤형 할부 상품을 다양하게 제공하며 고객 맞이에 나설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CARM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

2024.04.26(금)
13:00~17:00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

-연 사-

Robert Coppes
University Medical Center Groningen

Ryuichi Okamoto
Tokyo Medical and Dental University (TMDU)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임승원
현 애니젠 고문
전 한국IR협의회 상근부회장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최미혜
한국거래소
차장

정형구
미리어드생명과학
이사

■ 행사개요

- **행사명:** CARM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
- **일 시:** 2024년 4월26일(금) 13:00~17:00
- **장 소:**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1층)
- **주 최:** (사)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 **후 원:** 충청북도
- **등 록:** 운영사무국 M&C기획 02-721-9818 선착순, 사전접수만 입장 가능

포럼에 참가한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Registration

■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가등록	12:30~13:30	사전등록 (13:00~13:30 VIP Tea 타임)
개회 및 축사	13:30~13:50	**이득주**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섹션1	13:50~15:30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연구 및 현황 강연1: **Robert Coppes** 교수 (동시통역제공) "Organoids for Post-Radiotherapy Regeneration of Salivary Glands, the RESTART study" 강연2: **Ryuichi Okamoto** 교수 (동시통역제공) "Clinical application of patient-derived organoids" 강연3: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의 현황과 전망" 강연4: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인간 전분화능 줄기세포 유래 장 오가노이드 원천 및 활용 기술 개발"
브레이크타임	15:30~15:45	커피 브레이크 및 자유 네트워킹
섹션2	15:45~17:00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시장과 전망 **정형구** 미리어드생명과학 이사 "재생치료제 동향 및 오가노이드의 역할" **임승원** 전 한국IR협의회 상근부회장 "바이오벤처기업의 IPO전략 **최미혜** 한국거래소 차장 "찾아가는 기술특례 상장 설명"
폐회	17:00	정부 관계 부처 및 금융기관 전문가

CARM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COUNCIL FOR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美 인디애나에 최첨단 칩 패키징 생산기지 설립

SK하이닉스 "2028년 하반기부터 AI 메모리 제품 양산"

美 퍼듀대학교서 투자협약식
투자금 38.7억달러 규모
주 정부 투자유치 적극 나서

SK하이닉스의 이천캠퍼스 전경.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 주(洲)를 최첨단 칩 패키징 생산 기지 설립지로 최종 결정했다.

SK하이닉스는 3일(현지시간)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West Lafayette)에 위치한 퍼듀대학교에서 주요 관계자들과 투자협약식을 열고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SK하이닉스는 웨스트라피엣에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퍼듀(Purdue) 대학교 등 현지 연구기관과 반도체 연구·개발에 나선다. 투자금은 38억 7000만 달러(약 5조 2000억 원) 규모다.

이날 행사에는 에릭 홀콤(Eric Holcomb) 인디애나 주지사, 토드 영(Todd Young) 미 상원의원(인디애나), 아라티 프라바카(Arati Prabhakar)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등 미국 정부 측 인사와 한국 정부 측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 김정한 주시카고 총영사가 참석했다. SK그룹은 유정준 미주 대외협력 총괄 부회장, SK하이닉스 곽노정 CEO, 최우진 부사장(P&T 담당) 등 경영진이 참석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 공장에서는 2028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HBM 등 AI 메모리 제품을 양산할 예정"이라며, "당사는 이를 통해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을 활성화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또, "인디애나에 건설하는 생산기지와 R&D 시설을 바탕으로 현지에서 1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SK하이닉스는 주 정부가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선 것은 물론, 지역 내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제조 인프라도 풍부하다는 점을 들어 인디애나로 최종 결정했다. 반도체 등 첨단 공학 연구로 유명한 퍼듀대가 있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SK하이닉스는 공장 건립 뿐 아니라 인디애나 주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한편 퍼듀 연구재단, 지역 비영리단체 및 자선단체의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SK하이닉스는 계획된 국내 투자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회사가 120조 원을 투자해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현재 부지 조성 공사가 한창이다. 회사는 이곳에 내년 3월 첫 팹을 착공해 2027년 초 완공하고, 소부장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미니팹'도 건설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네이버 치지직, 韓 스트리밍 시장 승기 잡아

성공요인, 네이버 타 서비스 연계
아프리카TV, 부적절 콘텐츠 관리 안 돼
이미지 쇄신 위해 '숲'으로 사명 변경

트위치 한국 철수 후 스트리밍 플랫폼 시장을 두고 아프리카TV(숲)과 네이버 치지직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아프리카TV는 이미지 쇄신을 위해 사명을 '숲'으로 변경한 뒤 글로벌 서비스 출시를 예고했다. 치지직은 50억 원을 스트리머(크리에이터) 성장 및 지원을 위한 투자금으로 설정하고 네이버 내 서비스와 연계를 통해 이용자 록인(Lock-in·자물쇠 효과)에 집중하고 있다.

3일 와이즈앱·리테일·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앱 이용자 수에서는 네이버 치지직이 숲을 앞섰으나 이용자 시청시간은 숲이 2배 더 길었다.

와이즈앱·리테일·앱이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를 상대로 표본조사 한 바에 따르면 지난 3월 치지직이 앱 이용자 216만 명을 기록하며 숲 이용자 196만 명을 넘었다.

지난해 12월 처음 베타서비스를 시작한 치지직은 첫달 111만 명을 모으고 1월에는 153만 명, 2월에는 201만 명으로 빠르게 이용자 수가 늘었다. PC를 이용한 경우 집계되지 않았으나 베타서비스 시작 3개월만에 시장 1위 기업을 앞지른 만큼 고무적이다. 반면 사용시간에서는 숲이 7.1억 분으로 치지직의 앱 3.6억 분 대비 2배에 달했다. 1인당 사용시간 또한 6시간 2분에 달해 치지직의 2시간 49분보다 2배 길었다.

숲과 치지직은 지난해 12월 트위치가 한국시장 철수를 알린 직후 바로 트위치 내 대형 스트리머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숲은 의사결정권을 가진 실무진들이 직접 방송을 진행하며 스트리머와 시청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전달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도 했다. 치지직은 베타서비스 시작 전 선제적으로 초대형 스트리머들과 미팅을 진행했다.

업계에서는 대체로 트위치 철수로 수혜를 입고 승기를 잡은 쪽은 치지직으로 보고 있다. 숲은 오랜 업력과 초대형 스트리머들, 충성심 강한 시청자들이 있음에도 다소 밀렸다는 평가다.

네이버 측에서 분석하는 치지직의 성공요인은 네이버 타 서비스와의 연계 지점이다. 현재 치지직은 스트리머 페이지에 지정한 네이버 카페가 연동돼 있어 실시간으로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다.

네이버 관계자는 "치지직을 이용하는 스트리머가 아니라도 대다수 스트리머 팬 카페는 네이버 카페에 자리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가입과 검색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스트리머의 팬들에게 큰 효용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치지직은 계속해서 네이버 서비스와의 연계를 넓히며 스트리머 생태계를 확장할 계획이다. 현재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에 구독권을 연동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른 의견으로는 "의도치 않게 숲이 치지직의 성장을 도왔다"는 주장도 있다. 숲이 '막장' 콘텐츠 등 다양한 사건사고로 외부적 이미지가 나쁜 것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부적절한 콘텐츠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스트리머들로서는 콘텐츠 성격에 따라 호불호가 크게 갈린다는 바다. /김서현 기자

SKT, '이프랜드' 동남아시아 확장 가속화

셀콤디지, 체리와 퍼블리싱 본 계약

SK텔레콤이 자사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ifland)'의 동남아시아 확장을 가속화 한다.

SKT는 말레이시아 통신 점유율 1위 기업 '셀콤디지(CelcomDigi Berhad)', 필리핀 IoT 플랫폼 기업 '체리(Cherry)'와 이프랜드 퍼블리싱 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SKT는 셀콤디지, 체리와 현지 최적화 메타버스 플랫폼 제공을 협력하고 나아가 글로벌 전 지역 대상 서비스를 총괄한다. 셀콤디지와 체리는 ▲현지 브랜드 제휴 ▲현지 특화 마케팅 ▲현지 1차 고객 지원에 주력한다.

연내엔 이프랜드에 AI 기능도 도입한다. 현지 언어·문화에 최적화된 인공지능(AI) NPC인 '소셜 AI agent'나 각국 문화에 맞는 3D 아이템·공간을 생성형AI로 제작하는 '3D AI 스튜디오'가 그 예다.

SKT는 동남아시아 국가를 시작으로 미주, 남미 등에 파트너사를 발굴하고 메타버스와 AI의 시너지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환경의 국가에서 접속해도 이질감 없는 '글로벌 AI 메타버스' 서비스로 이프랜드를 확장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의 메타버스 서비스 '이프랜드'에서 말레이시아 셀콤 디지 쿠칸 티루나바카라스 CIO(왼쪽)와 SK텔레콤 양맹석 메타버스 CO 담당이 계약 체결 세레모니를 진행하는 모습. /SK텔레콤

이밖에도 상반기 내 ▲말레이어, 인도네시아어, 힌디어, 스페인어 등 지원 언어 추가 ▲접속 지역별 고객 특성에 맞게 콘텐츠를 추천하는 큐레이션(Curation) 기능 등을 선보이며 글로벌 유저의 메타버스 사용경험을 높일 계획이다.

양맹석 SKT 메타버스 CO 담당은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이프랜드의 글로벌 확장에 중요한 시장 중 하나"라며 "현지 퍼블리셔와의 협력 및 AI 도입을 통해 '글로벌 AI 메타버스'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하이퍼클로바X, 성능평가서 우수한 성적"

네이버클라우드, 테크니컬 리포트 공개

네이버클라우드가 초대규모 AI(인공지능) '하이퍼클로바X(HyperCLOVA X)'의 테크니컬 리포트를 4일 공개했다. 테크니컬 리포트는 AI 모델의 세부 정보를 소개하는 논문이다.

리포트에 따르면 하이퍼클로바X는 성능 평가에서 글로벌 오픈소스 및 폐쇄형 모델들과 경쟁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글로벌 오픈소스 모델보다 높은 종합 점수를 획득했다. 한국어는 물론 일반 상식, 수학, 코딩 부문에서 비교 평가를 위해 선정한 14개 모델 중 1위를 기록했다. 폐쇄형모델과의 비교에서도 하이퍼클로바X는 우수한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다국어 능력에서 압도적인 수준을 보였다. 학습 데이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어와 영어 정보를 활용해 제3의 언어로 추론하는 능력을 갖췄다. 일본어, 아랍어, 힌디어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 언어 능력을 평가했을 때, 하이퍼클로바X는 주요 오픈소스 모델을 포함해 리포트에서 선정한 9개 모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며, 중국어에서만 같은 모델들 중 2위를 기록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하이퍼클로바X의 사전학습 데이터는 대부분 한국어, 영어, 코드 데이터로 구성된다. 학습 데이터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우 짧거나 반복적인 저품질 문서는 데이터셋에서 제외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도 삭제했다. 또한 정렬학습을 통해 사용자의 의도와 지시를 AI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모델을 고도화했다. /김서현 기자

하이퍼클로바X 로고

KT, 소상공익 결합상품 직관적 개편

'으랏차차 패키지' 출시

KT가 직관적으로 개편한 소상공인 결합상품 '으랏차차 패키지'를 5일 출시한다.

KT는 기존 소상공인 결합 상품인 '사장님 성공팩' 명칭을 '으랏차차 패키지'로 바꿨다. 상품 구조는 필수 상품·기본 선택·추가 선택 등 3단계에서 필수 상품·기본 선택 2단계로 간소화하고 소상공인들이 많이 찾는 상품으로 재구성했다.

으랏차차 패키지는 소상공인 매장 운영에 필요한 인터넷, 전화, 모바일, TV, 가게정보알림메시지, 통화매니저(PC) 등 통신상품 외에도 폐쇄회로(CC)TV, 카드결제서비스 부가통신망(VAN) 등 매장 솔루션 중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할인받는 결합상품이다.

KT는 이번 개편 시 매장으로 걸려오는 문의 전화를 인공지능(AI)이 응대하고 가게 홍보부터 고객 관리까지 가능한 'AI 링고전화'와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로 서빙이나 매장 방역을 맡는 'AI 로봇(서빙/방역)'을 패키지에 추가한다. /구남영 기자

‘반도체 ETF’ 수익률 고공행진에 자금운용사, 투자자 유치 총력전

반도체 업황의 회복과 최근 이어졌던 미국 증시에서의 반도체주 상승 랠리로 인해 반도체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그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자산운용사들의 수익률 높이기와 자금유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3월 ETF 수익률 상위 종목〉 /자료=한국거래소

종목			수익률
1	신한자산운용	SOL 반도체후공정	29.13%
2	삼성자산운용	KODEX AI반도체핵심장비	28.44%
3	한국투자신탁운용	ACE AI반도체포커스	24.55%
4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AI반도체핵심공정	24.02%

반도체 ETF 64개 평균수익 24%
지난달 전체 ETF 수익률 1~4위

미래에셋 ‘TIGER ETF’ 순자산총액
연초 814억→이달 2078억 불어

신한자산 SOL 반도체후공정 ETF
한달만에 100억, 이후 수익률 1위

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관련 ETF 64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평균 23.79%에 달한다. 최근 한 달 동안 13.97%가 올랐다. 지난달 ETF 전체 수익률 상위 종목에도 반도체 ETF가 포진해 있다. 1위부터 4위까지를 ▲신한자산운용의 ‘SOL 반도체후공정’(29.13%) ▲삼성자산운용의 ‘KODEX AI반도체핵심장비’(28.44%)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AI반도체포커스’(24.55%)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AI반도체핵심공정’(24.02%) 이 차지했다.

국내 증시에서 ETF 시장의 몸집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자산운용사들의 활약도 돋보이고 있다. 단순한 테마 ETF가 아닌 전문성과 특색을 갖춘 각사만의 ETF를 출시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9년 450개에 불과했던 ETF 개수는 2024년 3월 말 기준 846개로 뛰었다. 다만 한 업계 관계자는 “ETF 시장의 성장과 함께 운용업계의 경쟁도 심화되면서 비슷한 테마의 ETF들이 연달아 공개되고 있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형사나 수수료가 낮은 곳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반도체 공정 관련주를 세분화해 투자하는 상품들도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선발 주자는 미래에셋자산운용으로 지난해 11월 TIGER AI반도체핵심공정 ETF를 출시했다. 해당 ETF의 순자산총액은 연초 814억원에서 이달 2일 2078억까지 불어났다.

지난달 수익률 1위를 기록한 SOL 반도체후공정 ETF 역시 공정 관련주에 투자한다. 특히 신한자산운용은 SOL 반도체 ‘전공정’과 SOL 반도체 ‘후공정’ ETF를 나눠 동시에 출시했다. 해당 ETF는 상장한 지 한 달 만에 순자산총액 100억원을 돌파했으며, 두 달도 되지 않아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NH아문디자산운용이 ‘HANARO 반도체핵심공정주도주’ ETF를 출시했다.

신한자산운용 관계자는 “SOL 반도체후공정 ETF의 성과는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등 AI관련 반도체 후공정 기업에 집중한 압축 포트폴리오가 힘을 발휘한 것”이라며 “특히 3개월 수익률 130%를 넘기고 있는 한미반도체의 편입 비중이 국내 반도체 관련 ETF중 가장 높다는 점도 주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반도체 ETF의 성과를 견인한 것은 한미반도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난달 수익률 상위 1위부터 4위를 기록한 반도체 ETF들이 모두 한미반도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반도체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제조에 필수적인 TC본더(열압착을 통해 칩과 웨이퍼를 붙이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의 SK하이닉스 공급사이며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의 공급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연초부터 현재까지 주가가 122.52% 급등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기업 밸류업을 위한 대표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참석인사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KRX, 밸류업 프로그램 기업의견 수렴

상장사 대표기업 간담회
“의견수렴 거쳐 가이드라인에 반영”

한국거래소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기업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거래소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으며, 기업들은 기관투자가 참여와 과감한 세제 지원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거래소는 4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주재로 ‘상장사 대표기업(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한국시장을 대표하는 삼성전자·현대차 등 코스피 상장기업 11사를 대상으로 지난 2월 유관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및 향후 주요 추진일정을 소개하고, 기업의견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은보 이사장은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로 해외 경쟁업체와 비교할 때 자본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다”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것”이라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대표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참여해 마중물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기업들은 기관투자자 참여, 인센티브 확대, 이사회 역할, 자율공시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기업 밸류업에 대한 정부·유관기관의 지원이 단기적인 관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 기조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동시에 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의 밸류업 지수·상장지수펀드(ETF) 편입 및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를 통해 기업 밸류업과 투자 사이에 선순환이 구축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신하은 기자

자금줄 막힌 바이오기업 ‘상장폐지 기로’

제넨바이오·카나리아바이오 등 6곳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거래정지

“결국은 성과 못 내 발생하는 문제
사실상 개선되기 상당히 어려울 것”

재무 건전성 악화로 일부 바이오 기업들이 상장폐지 기로에 놓였다. 바이오부문 투자가 대거 끊기면서 자금줄이 막힌 상황인 데다 연구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실적 악화, 자본 잠식 등에 빠져 상장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다.

4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넨바이오, 셀리버리, 뉴지랩파마, 카나리아바이오, 세종메디칼, 제일바이오 등은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거래가 정지됐다.

외부감사인은 회사 재무제표에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 거절을 표명할 수 있다. 이중 의견거절은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려워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경우다. 적정의견을 제외한 세 가지는 코스닥 상장사의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해당 기업은 이의신청을 통해 1년간 개선 기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의 심사결과에 따라 상장이 유지될 수 있지만,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거래는 정지된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종이식 전문 기업 제넨바이오는 지난달 22일 주식 매매가 정지됐다. 제넨바이오는 올해로 6년째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22년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불확실성에 따른 ‘한정 감사’ 의견을 받았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최대주주와 기존 경영진이 갈등을 보이고 있고 핵심 연구진들이 이탈하면서 사업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신약 전문 기업 카나리아바이오는 완전자본잠식에 빠져 거래가 정지됐다. 카나리아바이오의 자본잠식률은 지난해 말 기준 386.8%다. 개발 중인 난소암 치료제 ‘오레고보맙’ 임상 3상 중단 권고에 따라 무형자산 손상차손 반영으로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다.

2018년 성장성 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셀리버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2022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로 주식거래가 중단됐으나, 이를 해소하지 못한 채 작년 회계에서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것이다. 셀리버리는 지난해 매출을 전혀 올리지 못했으며 자본잠식률은 233.1%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

뉴지랩파마 역시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재무 구조 개선에 나섰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현재 자본잠식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세종메디칼, 제일바이오 등이 실적 부진으로 인해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상임부회장은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투자로 한 임상까지밖에 갈 수가 없는데 최근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끊기면서 후속 진행을 못하고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또 매출 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 고금리 지속으로 인해 자본 잠식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바이오 기업들은 거래 재개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이나 고금리 지속, 바이오 투자 한파 등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이 결국은 성과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며 “근본적으로 기업의 영업 성과 내지는 기업의 매출이 성과 낼 수 없는 단계로 가버렸기 때문에 외부에서 투자자금이 추가로 유입되지 않으면 개선되기는 사실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미래에셋證, 퇴직연금 DC적립금 10조 돌파

중장기 연평균 수익률 5년 5.2%

미래에셋증권이 증권업계 최초로 퇴직연금 DC 적립금이 10조를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달 1일 기준 퇴직연금 DC 적립금 10조 283억을 기록했다. 미래에셋증권의 퇴직연금 DC 중장기 연평균 수익률은 지난해 말 기준 5년 5.2%, 7년 3.87%, 10년 3.22%를 기록하며 퇴직연금 적립금 상위 10개 사업자 중 5, 7, 10년 중장기 수익률 모두 1위를 기록했다.

또 DC 적립금 중 실적배당형 상품의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사업자 평균 18%를 웃도는 53%를 기록했다. 적립금은 4조8000억원으로, 전체 사업자 실적배당형 상품 18조2000억원의 약 26%에 해당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ACE 美빅테크TOP7 Plus ETF’ 수익률 1위

한투운용, 연초 이후 수익률 21%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미국빅테크TOP7 Plus 상장지수펀드(ETF)의 연초 이후 수익률이 빅테크 ETF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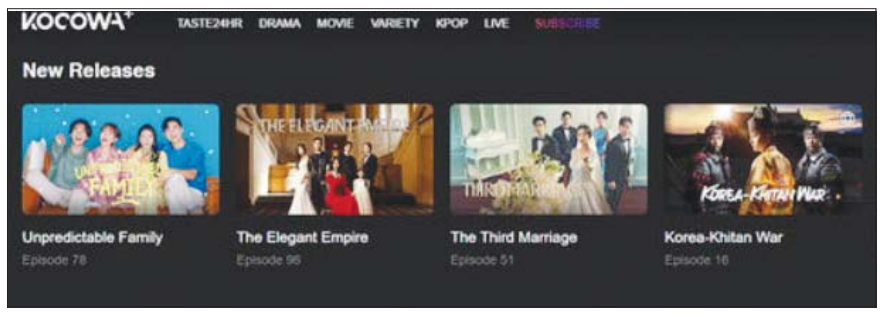
3일 기준 ACE 미국빅테크TOP7 Plus ETF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21.30%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상장된 빅테크 ETF 9개(레버리지 제외)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6개월 수익률 또한 33.91%로 우수하다. 레버리지 ETF를 포함하면 ACE 미국빅테크TOP7 Plus ETF의 레버리지 버전인 ACE 미국빅테크TOP7 Plus레버리지(합성) ETF가 1위(연초 이후 43.82%, 6개월 71.17%)이다.

ACE 미국빅테크TOP7 Plus ETF는 미국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된 빅테크 기업의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편입하는 상품이다. 특히 10개 종목 중 매그니피센트7(M7)으로 불리는 빅테크 종목들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현재 M7 종목의 편입비중은 ▲엔비디아(22.40%) ▲아마존닷컴(15.95%) ▲마이크로소프트(15.04%) ▲구글(알파벳 A, 14.80%) ▲애플(12.36%) ▲메타(11.97%) 순이다.

/신하은 기자

韓OTT, K콘텐츠로 적자 벗어난다
예능·스포츠 앞세워 글로벌 맹추격

웨이브, 유럽·오세아니아 시장 진출
미주지역 35개국 포함 74개국 제공
티빙, 평균시청 시간 넷플릭스 앞질러
스포츠 중계 도입 이용자 수 20%↑



웨이브는 코코와가 지난 1일(미국 현지시각)부터 유럽·오세아니아 39개국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웨이브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돌파구를 마련하며 글로벌 OTT를 맹추격하고 있다. 웨이브는 국내 최초 유럽에 진출하는가 하면 티빙은 스포츠 부문을 확대하며 수익성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 수도 연일 증가하면서 국내 OTT업체들이 적자폭을 탈출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에 따르면 국내 OTT 이용자는 2020년도 66.3%에서 2021년 69.5%, 2022년 72%, 2023년 77%로 크게 늘었다. OTT 유료결제 이용자 비율 또한 2020년 21.7%에서 57%로 급증했다.

그동안 토종 OTT 업체들은 적자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콘텐츠 투자 효율을 높이고 글로벌 서비스를 확대해 수익성을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먼저 SK스퀘어 자회사 웨이브는 막대한 비용 필요한 영화 장르보다는 예능·시사교양장르에 집중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매출은 2480억원으로 9.4% 줄었지만 핵심 수익원인 유료 이용자 구독료 매출(미디어 매출)은 2193억원으로 재작년 대비 7.1%(146억원) 증가했다. 특히 영업손익은 -791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지만, 재작년과 비교하면 적자 규모는 32.9% 줄었다.

웨이브는 또 유럽과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했다. 웨이브는 지난 3일 미주지역 서비스를 담당하는 자회사 '웨이브아메리카'를 통해 유럽·오세아니아 지역 39개국에 OTT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서비스를 제공해 온 미주지역 35개국을 포함해 총 74개국에 OTT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이태현 대표는 지난달 열린 주주총회에서 "지속 가능한 수익성 확보를 위해 글로벌 사업 확장,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 투자 효율성 제고 등 사업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연내 월 단위 손익분기점(BEP) 돌파를 통해 지속 성장 가능한 경영환경을 구축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티빙, 1인당 평균시청 시간 넷플릭스 앞질러

티빙은 유무선 스포츠 생중계 서비스를 시작하며 1인당 평균 시청 시간이 넷플릭스를 앞질렀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티빙의 1인당 평균 시청 시간은 지난해 2월(469분)보다 7%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넷플릭스는 491분에서 422분으로 14.1% 감소했다. 그동안 티빙의 주요 시청자 지표 가운데 넷플릭스를 넘어선 적은 단 개도 없었다. 하지만 올 들어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이는 티빙이 제공하는 스포츠 생중계 서비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CJ ENM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티빙은 올해부터 3년간 한국프로야구(KBO) 온라인 중계권을 독점 계약했다. CJ ENM은 KBO 중계권 계약에 총 1350억원을 투자했다. 이는 연평균 450억원으로, 네이버 등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맺어 공동계약한 지난 계약보다 두 배 이상의 비용을 지불했다.

하지만 티빙은 대규모 투자 비용을 넘어선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티빙이 스포츠 중계 서비스를 도입한 직후부터 이용자 수가 20% 이상 급증했다. 특히 티빙의 지난달 월간활성이용자(MAU)는 661만 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1월에 전월 대비 12.6% 증가한 656만 명을 기록한 데 이어 0.8% 더 증가했다. 하루활성이용자(DAU) 증가율은 지난달 역대 최대 수준인 165만 명에 달했다.

반면 넷플릭스의 MAU는 지난해 12월 1306만 명 이후 하락하는 추세다. 올해 1월 1282만 명, 2월 1252만 명 등 전월 대비 각각 1.8%, 2.3% 감소했다. 같은 기간 DAU도 316만 명에서 307만 명, 282만 명으로 줄었다. 전월과 비교하면 DAU는 올해 1월 2.8%, 2월 8.1% 감소했다.

◆OTT 구독, 스포츠 중계 영향… 적자 탈피는 '글쎄'

실제 스포츠 중계가 OTT 구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국내 OTT 이용자 2명 중 1명은 특정 OTT를 구독하는 데 스포츠 생중계 제공 여부를 고려한다는 것. 메조미디어가 지난 26일 발간한 2024 OTT 업종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응답자 중 53%는 '실시간 스포츠 중계가 OTT 구독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특히 OTT 이용자 10명 중 6명 이상이 OTT를 통해 스포츠 생중계를 시청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면서 스포츠 콘텐츠가 OTT 시장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토종 OTT의 적자 탈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웨이브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각각 803억7300만원과 1191억2000만원 발생했으며 누적 결손금은 4828억2900만원, 당기말 유동부채는 유동자산을 1983억3300만원 초과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연결실체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해 유의적인 의문을 초래할 수 있다"고 기재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CJ대한통운 "고객사 특성 맞춤형 관리"

기업별 맞춤 컨설팅·배송 등 '주목'
물류 효율 증대… 고객사 ESG 도움

CJ대한통운의 물류 컨설팅사업이 고객사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기업·산업별 맞춤 컨설팅 제안부터 센터 설계, 배송에 이르는 공급망 관리(SCM) 역할 수행을 통해 고객사의 물류 비효율 제거에 톡톡한 역할을 하면서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부터 공산품·H&B·주류 등 다양한 산업군에 속한 2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10곳은 단순 컨설팅을 넘어 물류창고 운용 및 배송까지 이어지는 3자 물류(3PL) 계약까지 체결하는 등 운영 역량에 높은 점수를 줬다.

CJ대한통운 직원이 물류센터에서 AGV를 운용하고 있다.

고객사 물류운영 현황 분석, 문제점 도출 및 개선책 제안으로 이어지는 물류컨설팅은 최근까지 국내 일부 물류기업과 자동화설비를 갖춘 중소기업 일부만이 참여하는 시장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CJ대한통운은 ▲식품·패션·뷰티·가전·자동차 등 전 산업부문에 걸친 풍부한 경험과 운영역량 ▲TES 물류기술연구소 기반의 첨단기술 ▲300여명의 물류 컨설턴트로 구성된 전문조직을 토대로 한 '고객 맞춤형' 물류 컨설팅을 무기로 삼았다.

먼저 CJ대한통운은 물류체계 비효율 개선, 센터 설계와 운영 프로세스 혁신(PI), 물류네트워크 전반 설계 등 컨설팅 유형을 총 7개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벤처協, 분당갑 이광재·안철수 후보 대담회

판교테크노밸리 활성화 해결 과제 제시

벤처기업협회가 국회의원 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를 초청해 판교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한 견해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벤처협회는 지난 3일 제22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성남분당갑 이광재 후보, 안철수 후보와 판교 인근에서 대담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벤처협회는 대담회에서 판교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한 해결과제로 ▲지역 내 유입 증가에 따른 대중교통 부족 등 교통 인프라 확충 ▲판교 근무자를 위한 주거공간 등 정주여건 개선 ▲지역 내 입지공간 포화로 인한 기업의 확장 제한 우려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와 안 후보는 이에 대한 견해와 공약을 제시했다. 아울러 후보자들은 우리나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 활성화 ▲우수 인재 육성 및 확보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 사회자인 더컴퍼니즈 문경미 대표,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 등의 향후 국회에서의 입법 활동 계획도 발표했다. 초청 대담회 영상은 벤처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성상엽 벤처협회장은 "이번 대담회는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의 국회의원 후보자를 만나 지역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공약과 정책 방향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SK이노, ESG 우수협력사에 컨설팅 지원

계열 협력사 80여곳 초청해
'동반성장-ESG세미나' 개최

SK이노베이션이 협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4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지난 3일 울산 중구 SK행복타운에서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지오센트릭, SK엔무브 등 SK이노베이션 계열과 거래하는 협력사 80여곳를 초청해 '동반성장·ESG CEO 세미나'를 개최했다. 협력사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SK이노베이션 계열의 협력사 ESG 경영 현황을 소개하고, '제3차 ESG 우수협력사 인증·포상'을 진행했다.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우수협력사로 선정된 37개 협력사에게는 인증패와 SK이노베이션의 ESG 컨설팅 이용권이 증정됐다. 우수협력사는 ESG 컨설팅 이용권을 통해 ISO 인증,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이자 지원과 ESG 평가 담당자 대상 12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 지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22년부터 협력사의 자발적인 ESG 역량 강화를 독려하고자 ESG 우수협력사를 인증·포상해왔다.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ESG 우수협력사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포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협력사 ESG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했다. 올해는 공급망에 대한 ESG 리스크 실사와 공시를 의무화한 'EU 공급망 실사 지침' 가결에 따른 영향과 이에 따른 SK이노베이션 계열의 업무 추진 방안을 공유하고 협력사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SK이노베이션은 협력사들의 ESG 경영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ESG 컨설팅 및 리스크 평가도 시행하고 있다. ESG 컨설팅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원, 인사노무 종합진단, 2차 협력사 ESG 원데이컨설팅 등을 주제로 지난 달부터 진행 중이며, 오는 6월부터는 ESG 리스크 진단을 위한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평가결과 개선필요 등급을 받은 고위험 협력사는 개선 계획 수립과 개선 이행 활동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김진원 SK이노베이션 재무본부장은 "비우호적인 외부 환경 속에서도 ESG경영에 힘써 주신 협력사 대표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린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KPGA '제네시스 챔피언십' 국제대회 격상

오는 10월 24일 인천 송도서 개최

KPGA 투어 제네시스 챔피언십이 올해부터 국제 대회로 격상된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오는 10월 '제네시스 챔피언십'과 '코리아 챔피언십 프레젠티드 바이 제네시스(이하 코리아 챔피언십)'를 통합한 '2024 제네시스 챔피언십'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DP월드투어와 KPGA 투어가 공동 주관으로 개최한다.

제네시스 챔피언십은 국내 남자 골프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제네시스가 개최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KPGA 투어 대회다. 우승자에게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 출전권을 제공하는 등 한국 선수들의 글로벌 무대 진출을 지원해왔다.

규모를 키운 '2024 제네시스 챔피언십'은 오는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인천 송도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에서 개최된다.

/양성운 기자 ysw@

제9회
베지노믹스페어
Vegan Festa & green Festa
www.veganfesta.com
서울비건 &
그린페스타
IT'S A GOOD LIFE!
식품&음료 | 패션&뷰티 | 생활용품
푸드테크 | 대체 소재&친환경 기술
2024.5.31(금)~6.2(일)
SETEC 전관
주최 서울특별시
(주) 베지노믹스페어 비건페스타

한국폴리텍대학 임춘건 이사장 직무대리(왼쪽 다섯번째)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박성효 이사장이 4일 인천 부평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에서 '소상공인 역량 강화 및 활성화 환경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

폴리텍대, 소상공인 창업·성장·재기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 '꿈드림 공작소'로 창업 진입장벽↓

한국폴리텍대학이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 재기 지원에 나선다. 폴리텍대학은 4일 인천 부평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 위기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기관이 보유한 기반 시설을 적극 활용해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폴리텍대학은 '꿈드림 공작소' 시제품 설계·제작 지원 서비스를 통해 혁신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제조업 소상공인의 스마트 기술 활용과 기술 애로 해결을 지원한다.

꿈드림공작소는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폴리텍대학 35개 캠퍼스의 시설·장비를 개방해 단기 기술교육과 체험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폴리텍대학은 소진공의 '소공인지원센터'를 기점으로 소상공인의 역량과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맞춤형 기술지도 서비스인 '소규모사업장훈련'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전직과 재취업을 희망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는 직업훈련을 통한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신속한 재기를 돕는, 일자리 안전망 역할도 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장애인고용公, 중증 장애인 채용확대 박차

학교법인 신흥학원과 맞손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학교법인 신흥학원이 중증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 힘을 모은다. 공단은 4일 신흥학원과 중증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가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투자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협약에 따라, 신흥학원은 공단 경기북부지사와 협업해 중증시각장애인 창작 무용공연 등 문화예술분야 직무 개발·확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단계적인 중증 장애인 채용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이끌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차정훈 고용촉진이사는 "신흥학원과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은 중증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효성 공단 경기북부지사장은 "학교법인 신흥학원 및 신한대학교와 시각장애인문화예술 공연 법인 룩스빛아트컴퍼니와 긴밀히 연계해 중증장애인 문화예술 분야 직무 개발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변도윤 신흥학원 이사장은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것은 글로벌 리더 교육기관으로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을 여는 기회"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식품부, '종자산업' 수출 활성화 도모

민간육종연구단지 활용

정부가 올해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적극 활용해 '종자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국산 우수 종자의 수출 상품화를 위해 종자 생육현장에 해외구매자 등을 초빙한다.

농식품부는 4일 "지난 2016년 완공된 민간육종연구단지(전북 김제 소재, 54ha)에 현재 종자산업진흥센터와 18개 종자기업이 입주해 우수 품종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기업이 육성중인 종자 생육 현장에 해외구매자 초청해 국산 우수 종자 수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능성 종자 등을 매개로 입주기업과 농가(계약재배), 소재기업(제품생산)이 협력하는 협업모델을 발굴·확산하는 시범사업을 마련한다. 이 밖에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으로 연구단지 입주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실무 체험 기회 등을 제공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중소·중견기업 기술혁신 마중물 올해 기술금융 3.4조 규모 공급

산업부, 기술금융투자확대 전략회의
올해 CVC펀드 2.4조 규모 지원

산업기술혁신펀드 4000억 조성
7개 첨단산업육성분야에 집중투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전윤종 한국산업기술평가기획원장,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을 비롯한 혁신기업, 벤처투자사, 금융기관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술금융 투자확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도전적 기술혁신과 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해 올해 3조4000억원 규모 민간주도 기술금융을 공급한다.

2조4000억원 규모 민관 합동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새로 조성되고, 4000억원 규모 산업기술 혁신펀드가 만들어진다. 방산 분야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방산 펀드도 조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사,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금융 투자 확대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민간 주도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먼저 올해 2조4000억원 규모 민간 주도의 CVC펀드를 조성해 혁신형 창업 기업에 투자하고, 재무적 투자에 더해 대기업의 사업 마케팅 역량과 혁신 인프라 등을 일괄 지원함으로써 개방형 혁신을 촉진한다. 포스코기술투자, SGC파트너스·어센도벤처스가 공동 운영하는 CVC펀드는 민간 2조3000억원, 선업기술혁신펀드 1000억원으로 조성된다.

이와 함께 산업기술혁신펀드를 4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해 방산, 인공지능(AI) 자율제조, 무탄소 에너지(CFE) 등 7개 첨단산업 육성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기술혁신펀드 최초로 첨단 민군협력펀드를 360억원 규모로 조성해 방산 분야 혁신 기업 육성에 나선다. 첨단민군협력 펀드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방산 3사가 추가 출자, 기업발굴과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방산 분야 혁신기업 육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첨단 전략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초저금리 융자형 연구개발(R&D) 지원사업도 5400억원으로 규모로 신설한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기부와 협업해 기술보증수수료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등 특례 보증도 지원한다. 또 벤처캐피탈 투자에 연계해 정부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연계형 연구개발도 올해 총 17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올해 신설된 융자형 연구개발 사업을 취급하는 13개 은행이 참여하는 융자형 R&D 협약식과 산업기술혁신펀드 조성 협약식이 개최됐고, 포스코기술투자, SGC파트너스·어센도벤처스(공동)가 운용사로 선정된 CVC 펀드 투자 협약도 체결됐다. 특히 지난해 산업기술 혁신펀드 운용사의 하나로 선정된 이스라엘 아워크라우드(OurCrowd)사의 이리 라진(Ely Razin) 투자총괄 이사도 참석해 "400억원 이상의 해외자본을 한국 기술혁신펀드에 투입하겠다"고 했다.

안덕근 장관은 "중소·중견기업이 기술개발 이후 상품화까지 겪게 되는 죽음의 계곡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CVC펀드, 융자형 역구개발, 투자연계형 연구개발 등 기술금융의 유형과 공급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농식품부, 식품분야 청년창업 적극 지원

우수社 13개팀, 전시기회 등 제공
내달 '청년식품창업센터' 준공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홈페이지 갈무리

정부가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식품분야 청년 창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올해 우수기업 13개 팀을 선발해 제품전시 및 홍보 등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음 달에는 전북 익산에 위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청년식품창업센터'가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함께 '청년식품 창업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식품분야 창업을 지원한다며 미래 식품산업 육성 의지를 밝혔다.

청년식품 창업성장지원 사업은 식품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만19세 이상~만39세 이하)에게 전문교육, 시제품제작, 투자유치 기회 제공 등 창업에 필요한 전 주기 과정을 지원하는 식품특화형 창업지원을 가리킨다.

예비창업(사업자 미등록)과 초기창업(창업 기간 7년 이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총 65팀의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계획 수립, 식품가공, 성공사례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이 중 55팀에는 신제품 개발과 개선을 위한 시제품제작을 지원한다. 또 우수기업 13개 팀을 선발해 오는 5월30일 개최 예정인 '농식품 기술투자 로드쇼'에서 투자유치 설명과 제품전시·홍보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4개 팀을 지원하며 시작된 본 사업은 지난해까지 전문교육 344개 팀 중 261개 팀에게 시제품제작을 지원했다. 그중 172개 팀이 창업, 신제품 출시, 지식재산권 출원 등 685건의 창업·사업화에 성공했다.

지난해 청년식품 창업성장지원 사업의 예비창업과정에 참여한 '딜라이트푸드'의 경우, 제품개발의 어려움을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식물성 고기만두 시제품을 개발한 뒤 2023년 4월 창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5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청년식품창업센터'가 준공된다"며 "임대형 공장, 시제품제작실, 제품 촬영 스튜디오 등을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시설 이용자를 모집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식품클러스터는 10개의 기업지원시설과 900여종의 연구·생산장비를 구축해 국가 미래식품 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거점으로 역할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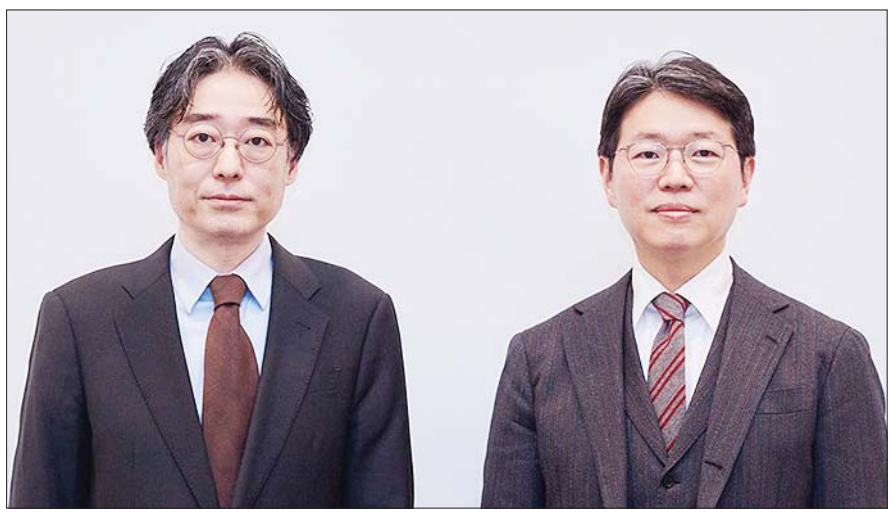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에 차남 임종훈… 경영 정상화 시급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모친 송영숙 회장과 공동대표
임종윤, 한미약품 대표 복귀 전망
장녀 임주현 전 부회장 거취 불투명

OCI 통합 불발에 상속세 마련 시급
총 5400억 중 2700억 가량 남아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이사(오른쪽)와 임종윤 사내이사. /뉴시스

한미약품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가 4일 이사회를 열고 창업주인 고(故) 임성기 회장의 차남인 임종훈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현 대표이사인 모친 송영숙 회장은 임 대표와 공동 대표를, 장남인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는 한미약품 대표를는 맡을 전망이다.

이날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임종윤·종훈 형제가 승리한 이후 처음 열린 이사회다.

임종윤·종훈 형제는 모녀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이 추진한 한미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주총에서 이들의 이사회 진입과 함께 그룹 통합을 저지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주총에선 임종윤·종훈 사내이사를 포함해 이들이 추천한 5명의 이사 선임 주주제안이 통과됐다. 형제는 주총에서 이사회 과반을 차지해, 경영권 교체 후 대표이사직으로 복귀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주총 전 각 한미사이언스 사장, 한미약품 사장직에서 해임된 바 있다.

임종훈 대표가 이날 이사회를 통해 경영복귀에 성공한 이후 장남 임종윤 사내이사는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경영 복귀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주총 표대결에서 극적으로 승리한 형제의 경영복귀가 가시화 되면서 향후 한미약품 그룹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한미-OCI 통합 불발에 따라 원점으로 돌아간 상속세 재원 마련이다. 2020년 8월 임성기 전 회장의 타계 후 오너 일가가 내야하는 상속세는 약 5400억원. 지금까지 주식 담보대출 등으로 납부한 후 2700억원 가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OCI와의 통합 역시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한 복안이었다. 하지만 통합이 불발되면서 나머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임종윤 전 사장은 지난 21일 간담회에서 "상속세를 낼 재원이 있다. 상속세 재원이 문제 되고 내 지분을 지킬 수 없다면 경영해선 안 된다"고 말하며 경영복귀 이후 1조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번 경영권 분쟁으로 불거진 오너 일가의 내부 갈등을 수습하고 기업을 하루 빨리 정상화 하는 일도 큰 과제로 남아있다.

이번에 모친인 송영숙 회장·임종훈 신임 대표의 공동 대표 체제가 논의 된 것 역시 가족간 화합을 위한 조치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기존 그룹 후계자로 낙점됐던 장녀 임주현 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의 거취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향후 대표이사 교체로 인한 경영진 교체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종윤 사내이사는 한미그룹을 떠난 임원들을 불러들여 경영진을 재편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임종윤·종훈 전 사장은 지난 주총에서 "회사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형제, 가족이 다 같이 합쳐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 어머니, 여동생과 같이 가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CJ푸드빌, 작년 영업익 74% '껑충'… 역대 최대실적

영업익 435억, 매출 8447억 11%↑
전체 영업익 중 60% 해외서 거둬
美 법인 6년째 흑자, 영업익 179%↑
빕스·더플레이스 등 외식 수익 개선

뚜레쥬르 인도네시아 매장 전경. /CJ푸드빌.

CJ푸드빌이 글로벌 F&B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견조한 실적을 기반으로 흑자구조를 지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CJ푸드빌은 지난 2023년 전 사업 부문에서 창사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CJ푸드빌에 따르면 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8447억원, 영업이익은 45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2%, 73.6% 증가했다. 특히 베이커리 해외사업은 미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 진출 국가에서 흑자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CJ푸드빌 전체 영업이익 중 해외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이른다. CJ푸드빌은 현재 7개국에 진출해 미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 현지 법인을 운영 중이다.

CJ푸드빌 미국 법인은 지난 2018년 CJ푸드빌 해외법인 중 최초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 후 6년 연속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38% 증가하며 미국 진출 이래 최초로 1000억원을 돌파했다.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179% 증가해 성장세를 보였다.

CJ푸드빌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도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매출은 전년 대비 20%,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7% 상승했다. 영업이익률도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CJ푸드빌은 올해 인도네시아에서 자카르타, 땅그랑, 브까시, 반둥, 발리, 메단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매장 출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6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베트남에서는 경기 둔화로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CJ푸드빌은 흑자를 지켜냈다. CJ푸드빌은 프리미엄 베이커리 1등 지위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B2B 및 O2O 사업을 확대하며 수익구조 다각화를 이뤄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CJ푸드빌은 빕스, 더플레이스, 제일제면소 등 국내 외식 부문 또한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CJ푸드빌에 따르면 외식 부문 매출은 전년보다 23.4%, 영업이익은 86.7% 늘었다. 브랜드 고급화, 진화한 브랜드 모델 확대 등이 질적 성장을 이끌었다는 것이 CJ푸드빌 측의 설명이다.

빕스의 경우 브랜드 고급화 전략을 통해 '프리미엄 스테이크&시즈널 샐러드바'라는 브랜드 가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한국식 면 전문점인 '제일제면소'와 이탈리안 비스트로 '더플레이스'는 기존 브랜드 정체성을 바탕으로 진화한 브랜드 모델을 선보였다. 일품요리와 전통주를 강화한 '무교주가 제일제면소'는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더플레이스'는 지난해 판교, 송도, 일산 등에서 신규 매장을 출점하며 진출 지역 확장에 나섰다.

/이청하 기자 mlee236@

현대모비스 피버스 함지훈 선수가 '그리팅 애슬릿' 전문 영양상담을 받는 모습. /현대백화점

현대그린푸드

울산 현대모비스 피버스 맞춤형 케어푸드 솔루션

현대그린푸드가 국내 식품업계 처음으로 KBL 프로농구 구단의 전문 케어푸드 솔루션 파트너로 선정돼 주목을 받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는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 피버스'에 운동선수 전용 맞춤형 케어푸드 솔루션 '그리팅 애슬릿'을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국내 식품업계에서 프로 스포츠 선수에게 영양상담과 맞춤형 케어푸드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현대그린푸드가 처음이다. 현대그린푸드는 그리팅 애슬릿을 현대모비스 주장 함지훈 선수를 비롯해 선수 5명에게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 기간인 5월까지 3개월간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현대그린푸드는 2020년부터 단체급식 고객사 임직원에게 영양사의 전문 영양상담을 기반으로 저당·저칼로리·고단백 등 맞춤형 케어푸드 식단을 제공하는 단체급식 프로그램 '그리팅 오피스'도 운영 중에 있다.

그리팅 애슬릿은 전문 운동선수의 특성에 맞춰 영양상담 과정을 더욱 전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그리팅 애슬릿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양상담 솔루션 '그리팅X'를 적용했다. 현대그린푸드 영양사가 선수 개인별 체성분 분석 결과와 영양 상태·식습관·알레르기 등을 확인하고, AI 분석을 통해 최적의 케어푸드 식단을 선별해 제안하는 방식이다. /최빛나 기자

현대홈쇼핑, LVMH 뷰티 코리아와 맞손

이커머스 경쟁력 제고 업무협약

현대홈쇼핑은 서울 종로구 LVMH 뷰티 코리아 본사에서 LVMH 뷰티 코리아와 이커머스 부문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LVMH 뷰티 코리아는 프랑스 럭셔리 그룹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의 뷰티 계열사로 지방시, 베네피트 등 다수의 럭셔리 화장품·향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사는 LVMH 뷰티 코리아의 주요 신상품을 현대홈쇼핑 공식 온라인몰 현대H몰에서 가장 먼저 선보이고 현대H몰 고객을 대상으로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온라인 고객을 위한 마케팅 차별화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현대홈쇼핑과 LVMH 뷰티 코리아는 현대H몰을 통해 ▲LVMH 뷰티 코리아 브랜드의 주요 신상품 단독 선공개 ▲단독 및 차별화 상품 개발·판매 ▲LVMH 뷰티 브랜드 대규모 기획전 진행 등 공동 프로모션 추진 등에 합의했다. 현대H몰 구매 데이터 분석에 기반해 상품을 함께 기획하는 등 맞춤형 마케팅 고도화에도 힘을 합치기로 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홈플러스, MSC코리아어워즈 '리테일러상'

수산물 유통 활성화… 2년 연속 수상

홈플러스가 지속 가능한 수산물 확산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3회 MSC 코리아 어워즈'에서 '올해의 리테일러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MSC 인증은 해양 생태계 및 어종 보호, 국제 규정 준수 여부 등 조업 과정 전반에 걸친 30여 개 항목을 평가해 부여하는 국제 인증으로, MSC '에코라벨' 제품은 지속 가능한 '착한 수산물'의 의미를 가진다.

홈플러스는 생활밀착형 유통사로서 MSC '에코라벨)' 수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소비자 접점을 확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업계 최초로 2년 연속 '올해의 리테일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빛나 기자

루퍼스 호우스 해양관리협의회(MSC·왼쪽) CEO, 심완섭 홈플러스 신선식품본부장이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홈플러스

기아 EV9, 독일서 벤츠·아우디 제치고 '전기차 1위'

獨 아우토 자이퉁, 전기차 비교 평가
차체·주행성능 등 3개 항목서 1위
"가격 경쟁력·성능 타의추종 불허"

기아 EV9.

기아의 첫 대형 전기차 EV9이 독일의 유력 자동차 전문지의 평가에서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4일 기아에 따르면 EV9은 독일 매체 아우토 자이퉁이 실시한 전기차 비교 평가에서 벤츠 EQS 450, 아우디 Q8-e트론 등 전기 SUV 3개 차종 비교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아는 독일 현지 프리미엄 브랜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독일 현지 비교 평가는 ▲차체 ▲주행 편의 ▲파워트레인 ▲주행 성능 ▲친환경·경제성 등 5가지 항목에 걸쳐 실시됐다. 기아 EV9(3353점)은 5개 평가 항목 가운데 차체, 역동적 주행 성능, 친환경·경제성 등 3개 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다. 벤츠 EQS 450(3317점), 아우디 Q8-e트론(3233점)과 비교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우토 자이퉁은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전기차와의 첫 비교 테스트에서 EV9이 우승할 자격이 충분하다"며 "높은 가격 경쟁력과 우수한 성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극찬했다.

한편 EV9은 지난해 출시 이후, 국내외에서 각종 자동차상을 휩쓸고 있다. 세계 3대 자동차상인 월드카 어워즈 '2024 세계 올해의 차'와 '2024 북미올해의 차'를 석권했으며 '2024 영국 올해의 차', '2024 레드 닷 어워드', '2024 iF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수상행진을 이었다. 전 세계에서 권위있는 자동차 상을 휩쓸며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3열 전기 SUV 퍼스트 무버' 입지를 굳히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접고 비틀어도 작동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중앙대 박성규 교수 연구팀

박성규 중앙대 교수

강승한 박사과정생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는 박성규 교수 연구팀이 접고 비틀고 늘려도 정상 작동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를 현실로 만들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

박성규 전자전기공학부·지능형반도체공학과 교수와 강승한 박사과정생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차세대 자유 형상 반도체 소자와 디스플레이에 적용하기 위한 '고신축성 무기 반도체 트랜지스터·집적회로' 기술을 개발했다.

다양한 형태 변환이 가능한 차세대 자유 형상 전자기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형태를 변환해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신축성 반도체 소자 개발이 전제돼야 한다. 유연함을 특성으로 하는 유기 반도체나 나노반도체 소재를 기반으로 진행된 기존 연구는 안정성 등 여러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현진 기자 lhj@

지씨셀 최고개발책임자에 강진희 영입

지씨셀이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나선다. 지씨셀은 임상 및 글로벌 규제 전문가인 강진희 최고개발책임자(사진)를 새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강진희 신임 본부장은 네오이뮨텍에서 글로벌 본부장 겸 최고규제책임자를 역임한 바 있다. T세포 기반 면역항암제와 감염질환 치료제를 위한 신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미국·유럽 허가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는 폴루스사에서 글로벌제품 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인슐린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규제 전략과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사업에 참여했다. 또 셀트리온과 ELC 그룹, 오츠카제약 등에서 글로벌 임상과 허가 전문가로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았다.

지씨셀에서는 원성용 세포치료연구소장과 함께 보다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 전략과 글로벌 진출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목표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정세영 부산대 광메카트로닉스공학과 교수(왼쪽부터), 박영도 수원제일평생학교 교장, 이호택 사단법인 피난처 대표, 김선욱 포스코청암재단 이사장이 4월 3일 포스코센터에서 제18회 '2024 포스코청암상' 시상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정세영 교수 등 3명 포스코청암상

포스코청암재단, 각각 상금 2억 수여

포스코청암재단이 지난 3일 포스코센터에서 2024년도 포스코청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과학상의 정세영 부산대 광메카트로닉스공학과 교수, 교육상의 박영도 수원제일평생학교 교장, 봉사상의 이호택 사단법인 피난처 대표에게 각각 상패와 상금 2억원이 수여됐다.

정세영 교수는 세계 최초로 금속의 산화 원리를 원자 수준에서 규명한 물리학자이며, 박영도 교장은 40여년간 학교 밖 청소년과 저학력 비문해 성인들에게 제 2의 교육기회를 제공한 재야 교육자다. 이호택 대표는 우리나라 최초의 난민지원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김선욱 포스코청암재단 이사장은 "오늘날 우리 인류는 기후변화, 전쟁, 테러, 부의 양극화 등 전 지구적으로 심각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수상자 분들이 보여준 진정한 신뢰의 가치를 세상에 전파하며 희망의 빛을 비추는 등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청암재단은 포스코 창업이념인 창의존중·인재중시·봉사정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확산시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2006년부터 포스코청암상을 제정하여 시상해 왔으며 18회를 맞이한 올해로 총 63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양성운 기자 ysw@

효성첨단소재, 포워드 패스터 가입

기업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지원

효성첨단소재는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정기총회에 참석해 'Forward Faster' 이니셔티브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Forward Faster'는 UNGC에서 지난 2023년에 출범한 이니셔티브로, 기업들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Forward Faster'는 성평등, 기후행동, 생활임금, 수자원 회복탄력성, 지속가능금융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참여하는 기업들은 각 영역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이동건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 반기문 유엔글로벌콤팩트 명예회장(왼쪽에서 네 번째)Forward Faster 세레모니에 참석해 효성첨단소재 등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효성

/차현정 기자 hy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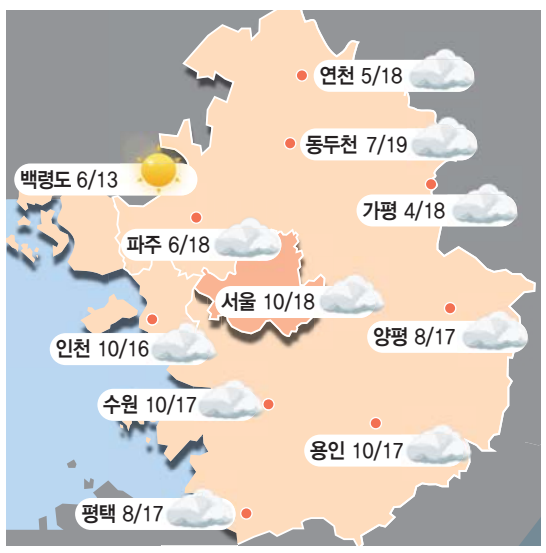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6:12 | 해짐 / 18:58

4월 5일 (금)
음력 : 2월 27일

수도권 날씨 10~18℃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GM, 한국뉴욕주립대와 업무협약

제너럴모터스(GM)는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지역사회 인재 양성을 위해 한국뉴욕주립대학교와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브라이언 맥머레이 GM 연구개발법인 사장(왼쪽부터), 아써 리 한국뉴욕주립대 총장, 헥터 비자레알 한국지엠 사장 겸 CEO가 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GM

에쓰오일, 화상피해 환자에 1.5억 후원

에쓰오일은 서울 영등포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서 사회복지법인 한림화상재단에 저소득 가정 화상 피해 환자의 치료와 자립을 돕기 위한 후원금 1억5000만원을 전달했다. 방주완 에쓰오일 CFO(왼쪽)와 허준 한림화상재단 이사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에쓰오일

아모레퍼시픽, 인삼장 팝업스토어 운영

글로벌 럭셔리 스킨케어 브랜드 설화수가 인삼의 과거와 현재를 소개하는 장을 마련했다. 설화수 '인삼장 팝업스토어'가 4일부터 14일까지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운영된다. /아모레퍼시픽

중견련, 차세대 리더 역량강화 모색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 3일 서울 용산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연 '중견기업 영(Young) CEO 네트워크'에서 (앞줄 왼쪽 6번째부터)산업통상자원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이호준 상근부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견련

부음

▲이인구씨 별세, 이형복(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장)씨 부친상=3일, 수원시연화장장례식장 209호, 발인 6일 오전 7시, 장지 1차 승화원·2차 괴산호국원. 031-218-6560

▲황석원씨 별세, 황경수·학수·해수(KB국민카드 상무)·혜경씨 부친상, 이구호씨 장인상, 허혜경·이혜정·엄원경씨 시부상 = 강원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6일 오전 6시30분, 장지 1차 춘천 안식원, 2차 부활동산. 033-254-5611

LG HelloVision

Hello rental

지금 사고 나눠내자!

온라인 최저가보다 최대 72% 저렴하게!

새로운 가전 구매 트렌드 LG헬로비전 헬로렌탈

상담문의 1855 -1082

※ 최저가 비교기준 : 22년 3월 N사 쇼핑 기준, 삼성TV(KU50UA7050FXKR),
KB제휴카드 전월 30만원 사용에 따른 할인 적용 시 ※ 월 렌탈료는 품목 및 할부 기간에 따라 상의

젊은 세대의 동학개미 탈출과 의미

송 치 승 교수의
경제 읽기

필자는 어느 모임에서 한국 자본시장의 문제점 두 가지를 들면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좌고우면할 것도 없이, 필자는 첫 번째가 우리 자본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이며, 두 번째가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취약이라고 대답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기관투자와 개인투자자 간 공정한 거래 경쟁을 어렵게 하는 제도나 관행이다. 예를 든다면, 기관투자자는 주식대차에 의한 공매가 가능하나 개인투자자는 거래증권사의 대주에 의한 공매가 이뤄지는 구조이다. 또한, 한국 자본시장의 매매제도가 딜러시장이 아니고 경쟁매매가 이뤄지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권사는 미국의 딜러나 스페셜리스트에게 주어지는 시장조성자로서 유동성 거래자 지위가 부여되고 있다. 무엇보다 개인의 주문에 대해서는 실시간 계좌확인을 거치는 반면에 기관투자자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구조이다. 이러한 불공정한 자본시장구조 하에서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개인투자자가 기관투자자의 먹잇감이 되는 건 당연한지 모른다.

이러한 문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으로 우리의 취약한 지배구조가 지적되곤 한다. 2021년 5월 아시아 지배구조연합회(CG Watch 2020)는 한국 지배구조 수준을 아시아지역 12개국 중 9위로 평가했다. 이는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수준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에서 이익의 현금흐름은 주주관점이 아니라 지배대주주의 관점으로서 기업가치 제고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소액주주들은 피해가 발생한다.

반면 지배구조가 취약하지 않고 투명한 기업에서 이익의 현금흐름은 주주관점에서 볼 때 기업가치 제고와 일치한다. 이 경우 소액주주들은 피해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 상법 382조의 3에 규정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는 지배구조의 강건, 투명, 양호 등의 속성형태 여부에 따라 적용상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최근 일본 주식상승의 배경에는 엔저, 디플레이션 탈피 등의 거시경제 여건개선 외에도 일본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와 관련된 조치도 한몫한다. 작년 일본증권거래소는 자본투자수익률로 표현된 자기자본수익률(순이익/자기자본)이나 투하자본수익률(세후영업이익/자기자본 및 순금융부채)이 자본비용 또는 가중자본비용을 초과하는 정도와 미달하는 경우 각각 이의 사유제시를 상장기업이 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기자본의 장부가치 대비 시장가치 비율이 낮은 기업들은 이를 해결할 전략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영향을 받아 우리 정부도 2024년 2월 1일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진행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배당증액이나 자사주 소각 등이 포함된 자본환원률 제고 정책과 밸류업 펀드 조성 등으로 이뤄졌다.

앞서 언급한, 기업가치 제고가 주주 부의 극대화와 같아지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가 강건하고 투명하며 양호한 속성형태로 바뀌어야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도 과거 이슈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보여 주기식 펀드나 지수 구성의 재탕으로 끝날 수 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동학개미에서 탈출하고 서학개미로 전환하는 현상은 우리의 기울어진 운동장과 취약한 지배구조를 대변하는 건 아닐까?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자율주행 속도보다 신뢰가 중요

기자 수첩
양 성 운
〈산업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 선점하려는게 무모했던거죠.(자율주행 부문 개발자)"

글로벌 완성차업체 뿐만 아니라 IT 기업들도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두고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우리가 먼저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해 성공했음을 자랑하고 싶은 모습이다.

자율주행 부문의 기술적 진보가 예상보다 느리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지만 자율주행 기술이 자동차 분야의 차세대 먹거리로 급부상하면 이같은 움직임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오리혀 조급하다는 느낌이 들정도다. 자율주행 분야에서 가장 진보된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테슬라마저 해메는 모습을 보면 어려운 기술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업들의 속도전이 확대될수록 오히려 대중의 관심은 싸늘하게 식고 있다. 자율주행 분야에서 선두 기업으로 주목받은 제너럴모터스(GM) 자율주행 회사인 크루즈가 지난해 8월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24시간 무인 택시 사업을 시작했지만 굴절버스 후미 추돌, 소방차 추돌, 구급차 진로 방해 등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켰고 갑자기 정차한 뒤 운행을 정지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특히 다른 차에 치여 횡단보도에 쓰러진 보행자를 크루즈의 자율주행 택시가 인지하지 못하고 끌고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실상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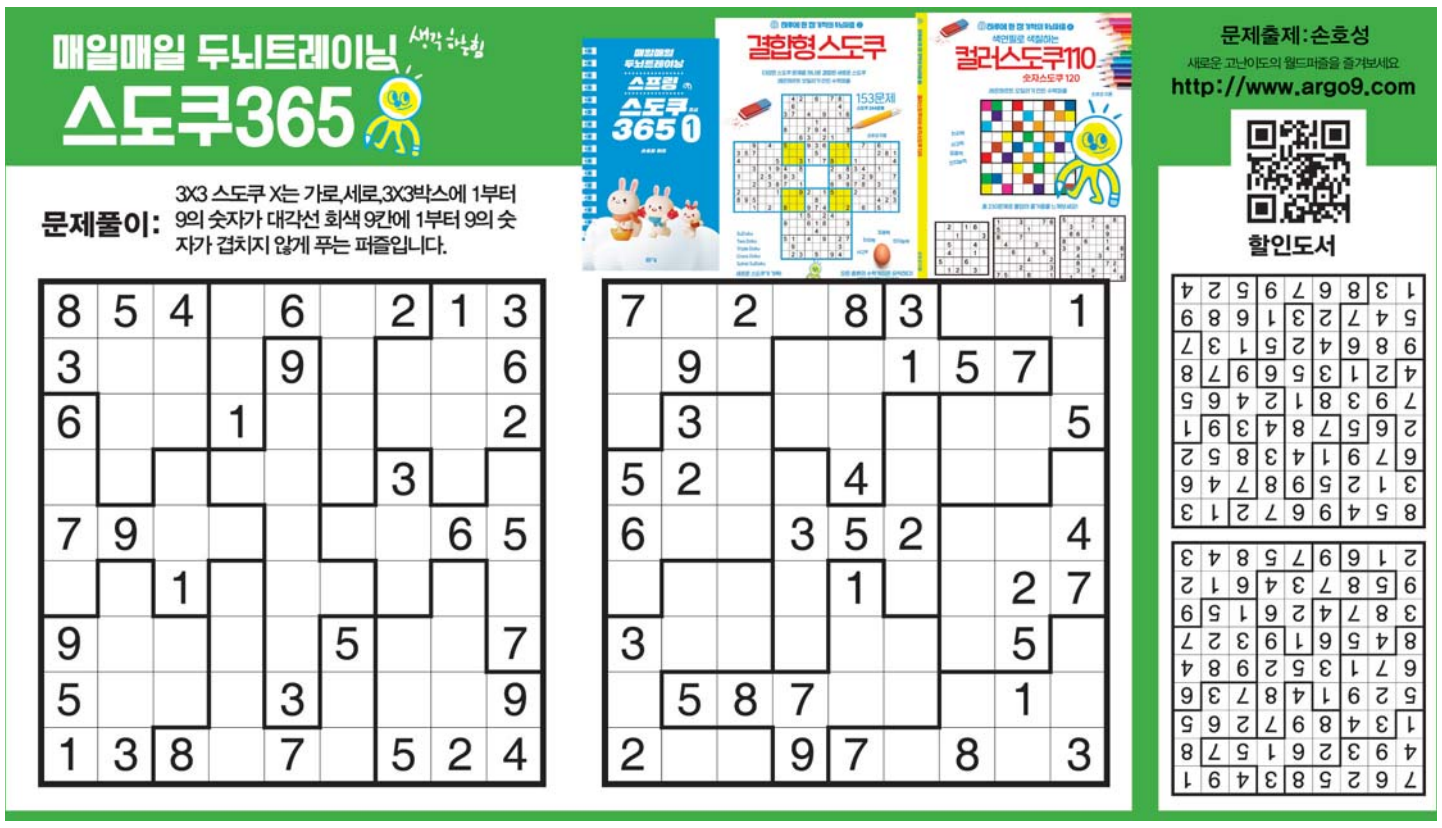
우버 무인 택시도 초반 꽤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우버 무인 택시도 전복 사고가 발생하며 창업자는 결국 회사를 떠났고 주인이 바뀌는 사태를 맞았다.

자율주행은 기술적 진보와 함께 긴 테스트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완전자율주행에 대한 분위기도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 1월 2000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무려 93%가 자율주행차의 안전성과 오작동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고 답했다. 61%는 가족과 함께 무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겠다고 했다.

GM 메리 바라 회장이 2030년까지 크루즈가 500억 달러(한화 약 67조34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처럼 완성차와 IT 업계는 자율주행 기술 선점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알고 있다. 하지만 세계 최초 자율주행 타이틀을 확보하기 위한 무리한 도전은 오히려 독이 된다. 속도보다 신뢰를 쌓는게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ysw@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4월 5일 (음 2월 27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자랑할 일이 많아 즐겁다. **48년생** 길 떠나려는데 천둥이 치니 출발해야 하나 고민. **60년생** 지나간 인연이 생각나니 서글프다. **72년생** 넓게 바라보면 여유가 생기고 방법도 보임. **84년생** 마음 씀이 다르면 운運도 오아시스를 만난다.

37년생 가족이라도 지나친 간섭은 피하는 게 좋다. **49년생** 변화의 날이니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다. **61년생** 계약을 위해 조금만 더 힘을 내자. **73년생** 인생은 체험에 의해 성장한다는 말이 있다. **85년생** 타고난 성격을 바꿔보자.

38년생 참는 자에게 복이 오는 법. **50년생** 검은 구름이 서서히 가시고 밝게 개이니 좋은 날. **62년생** 아랫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면 이로운 일이 있다. **74년생** 고뇌의 사슬이 얽히고설키니 어쩌랴. **86년생** 겸손하고 하 심하면 운세도 향상.

39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할 수밖에. **51년생** 시작이 좋으니 마무리도 산뜻하게 맺는다. **63년생** 이성 삼각관계에서 벗어나 후련하다. **75년생** 부자와 귀하게 되는 것은 하늘에 있다는데. **87년생** 계속 피곤이 누적되니 명상을 해보자.

40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가라는데. **52년생** 역사는 돌고 돈다. **64년생** 술자리를 가지 않았는데 취한 것 같다. **76년생** 지나친 음주는 건강뿐 아니라 친구 사이도 멀어진다. **88년생** 가정 화목을 위해 애쓰니 평온을 얻는다.

41년생 집안일이 많아서 줄지를 않는다. **53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으니 움직이자. **65년생** 무지개를 잡으러 떠나기보다는 기술을 배우자. **77년생** 시작한 일에서 기대만큼 성과도 최고다. **89년생**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가 안타깝다.

42년생 선천운이 좋아야 후천운도 좋은 것을. **54년생** 새 인연으로 새로운 거래가 성사되니 만남을 중시 여겨라. **66년생** 이혼보다는 재혼이 어려우니 이혼을 조심. **78년생** 창업하여 산들바람이 불어온다. **90년생** 휴대폰을 빌려주다가 곤혹을.

43년생 보이스피싱 및 피싱에 조심을. **55년생** 화려한 무지개를 꿈꾸다가 있는 것도 놓칠라. **67년생**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79년생** 형제간의 다툼이 당파싸움을 능가할 정도다. **91년생**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으니 평소에.

44년생 만남보다는 흘러가는 대로 하루를 보내자. **56년생** 돈 앞에서 후안무취의 시누. **68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다 큰 것을 놓칠 수 있으니 주의. **80년생** 꿀을 얻고 싶다면 벌통을 먼저 마련하도록. **92년생** 경청이란 귀 기울여 듣는다는 얘기.

45년생 영어공부를 하여 새롭게 알아가는 즐거움이. **57년생** 죽순은 비 온 뒤 더 잘 자라니 고난을 참을 것. **69년생**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 **81년생** 동업자에게 내 주장이 너무 강한 것은 아닌지 살피자. **93년생** 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이해심.

46년생 배우자에게 직장에서 좋은 일이 생기니 행복. **58년생** 행복은 주변에 있으니 동료와 사이좋게 지내자. **70년생** 꼼수와 잔재주를 주의. **82년생** 교통의 축을 이루는 건 자동차와 동시에 사람이다. **94년생**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 다 놓친다.

47년생 담는 그릇에 따라 물 모양은 바뀌니 현실을 파악. **59년생** 달빛이 밤하늘을 메우듯 기쁨이 넘치는 날. **71년생**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자. **83년생** 주변 모임에서 지갑을 조심. **95년생** 말과 행동에 앞뒤가 맞지 않으면 재산형성에도 나쁜 결과를.

김상회의 四季

노력과 욕심

노력과 욕심이 있다. 기본소득제를 제안하고 안심소득제를 도입 시행한다는데 2천년전 공자가 말한 대동사회(大同社會)를 만들기 위한 노력인지. 서로 선의의 정책경쟁의 욕심인지여하튼 평온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 욕심이란 자기가 무언가를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다. 정책 돈 승진 같은 것뿐 아니라 맛있는 음식이나 여행 등도 욕심의 대상이다.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욕심으로 인해 다른 문제가 생길 때이다.

승진에 욕심이 많았던 직장인이 있었다. 그는 일 실적을 올리려고 야근도 불사하면서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갖은 애를 써도 실적은 들쑥날쑥했고 3년 동안 이사 승진에서 탈락했다. 그가 상담을 왔을 때 필자는 승진보다 건강을 먼저 돌보라고 했다. 그는 오행 중에서 목(木)이 태과하고 토(土)가 약해서 간과 허리에 질병이 생기기 쉬웠다. 그렇게 무리하면 몸이 상할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승진 운세가 열리면 도움이 될텐데 그것도 아니었다. 건강은 나빠지고 승진은 힘든 형세였다.

상담 후 그는 승진 욕심을 접고 다니는 때까지 다니겠다며 몸과 마음을 돌보는 쪽으로 마음을 돌렸다. 마음이 편해지면서 건강도 따라서 좋아진 것은 물론이다. 옛날에 천석꾼을 욕심냈던 부자 이야기가 있다. 그 부자는 열심히 일했지만 언제나 구백 석에 그치곤 했다. 몇 년 동안 천석을 못 채우자 운세가 닿지 않음을 알고 주변에 넉넉한 인심을 베풀기 시작했다. 그러자 선한 부자로 칭송을 받으며 평생을 유복하게 살았다는 얘기다. 아무리 노력해도 운세가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원하는 성취를 이루기 어렵다. 후유증으로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니 그럴 땐 욕심을 내려놓는 게 지혜로운 선택 아니겠는가.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김 승 중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0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11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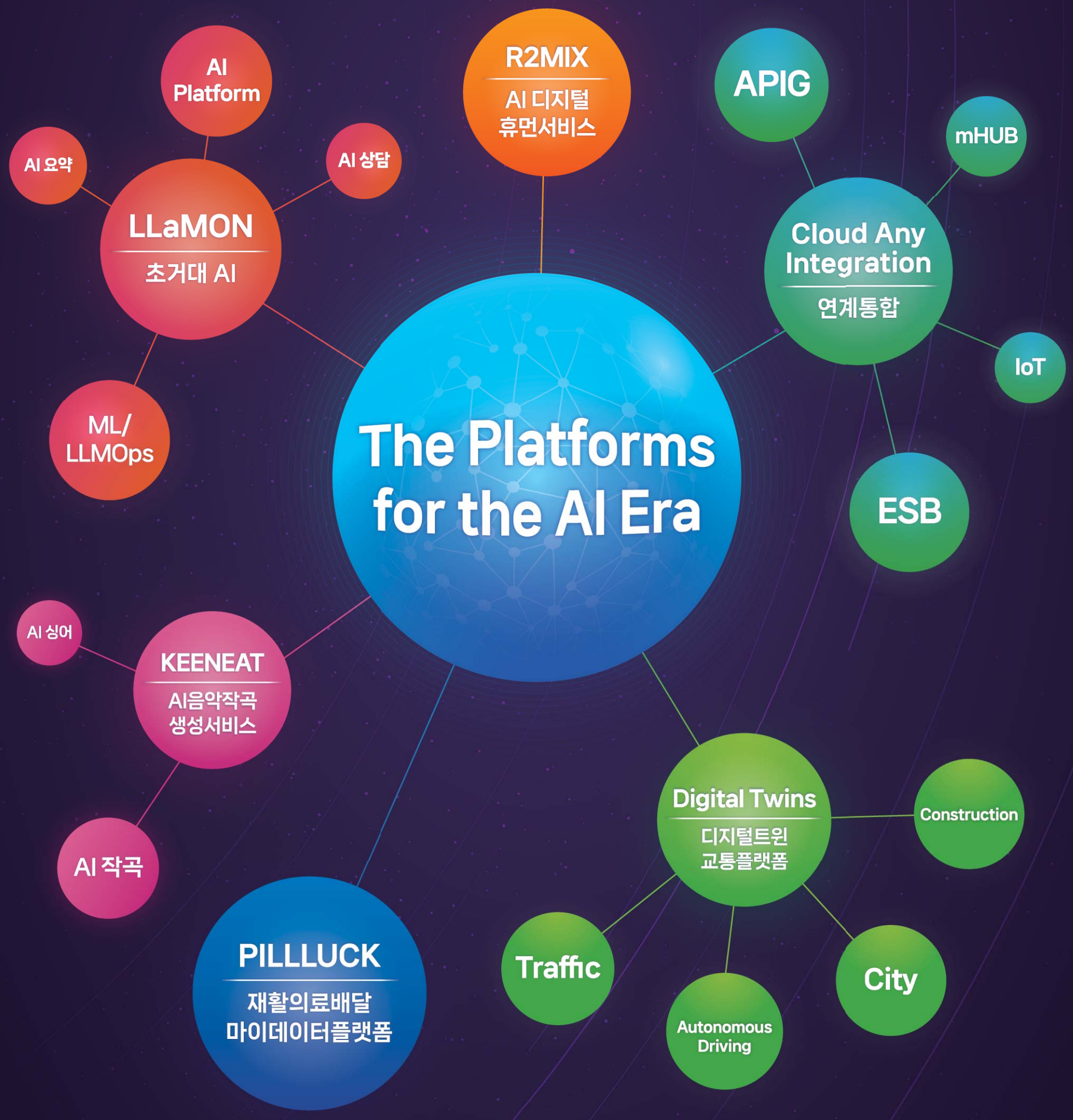
AI · 데이터 플랫폼 혁신 기업

25th AI INNOVATION

Platforms for the AI Era

연계·통합 미들웨어 시장점유율 1등 기업에서

AI·데이터·디지털휴먼, 디지털트윈 교통·자동차·시티·건설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



METABUILD

본사 06640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2 메타빌드 빌딩 연구소 06708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08 메타빌드 연구소

T. 02. 598. 3327 F. 02. 598. 3329 F. support@metabuild.co.kr www.metabuild.co.kr

호주와인과 중국…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안 상 미 기자의 Why, wine

중국 베이징의 한 와인 매장에서 직원이 호주 와인을 진열하고 있다. 최고 200%를 넘는 '관세폭탄'이 부과되기 전인 2020년 당시로 진열대 양쪽이 모두 호주 와인으로 가득차 있다. /와인스펙테이터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3년의 시간이 흘렀다. 있는 트집, 없는 트집 다 잡아 헐뜯었다. 소송전도 불사했다. 시간의 간극은 컸고, 그 사이 감정의 골은 더 깊어졌다.

왠 주말 드라마인가 하겠지만 다름아닌 호주 와인과 중국의 이야기다. 중국이 호주 와인에 대한 보복관세를 3년 만에 철폐하기로 하면서다.

2021년 3월, 중국은 호주산 와인에 116.2%에서 최고 218.4%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실제로 적용했다. '관세 폭탄'은 코로나19의 중국 우한 기원설을 언급한 호주에 대한 일종의 무역 보복이었다. 당시만 해도 호주는 와인 수출의 40%를 중국에 의존하던 때였다.

늘어난 세금만큼 비싸진 가격에 중국에선 호주 와인을 찾는 이들이 없어졌다. 2020년 중국으로의 호주 와인 수출액이 12억 달러에 달했지만 작년엔 810만 달러까지 쪼그라들었다. 호주 와인업계 입장에선 그야말로 핵폭탄급 타격이었다. 호주와인협회에 따르면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업자 역시 같은 기간 동안 2198개에서 117개로 급감했다. 남아돌아 저장 중인 와인만 올림픽 수영장 859개에 해당하는 규모로 파악됐다. .

2024년 3월, 중국 상무부는 호주 와인에 대한 보복 관세를 철폐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 와인 시장의 상황이 변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호주에서 수입되는 와인에 부과되는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세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일단 호주는 대환영이다. 호주와인협회는 "그간 호주 와이너리들은 중국 내 수입업자와 바이어, 소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계속 구축해 왔다"며 "중국 내에서 호주 와인에 대한 무역 업계와 소비자의 긍정적인 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호주 최대 와이너리로 국보 와인 펜폴즈를 가지고 있는 TWE는 이번 발표를 환영하며 "판매와 마케팅 확대를 위해 중국 고객들과 협력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TWE는 실적 발표를 하는 자리에서 "중국이 보복 관세를 철폐할 경우 펜폴즈 빈 시리즈와 아이콘 와인인 그랜지를 다른 수출 시장에서 중국으로 다시 배당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다"며 "우리에게 중국은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성장 기회라고 확신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혼 법정까지 갔던 부부가 하루 아침에 없던 일처럼 사이가 좋아지긴 힘들 터. 재결합이 해피엔딩이 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는 "호주가 이전과 같은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호주 와인의 수입이 부진한 사이 미국 와인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남호주의 한 와인메이커는 "무역 전쟁을 겪으면서 호주 와인 산업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며 "이전으로의 완전한 회복에는 수 년이 걸릴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와이너리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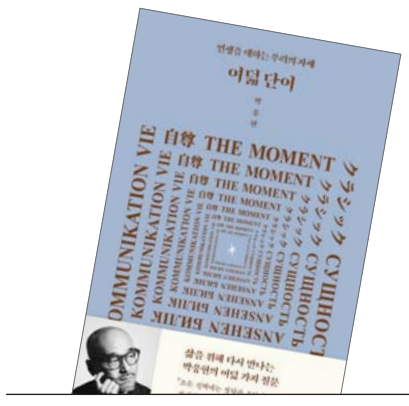
남의 답 아닌 '나만의 답' 찾기

웹서핑을 하다가 '자존감 높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어 클릭했다. 내용이 참 허무했다. '이런 거 안 찾아봄ㅋㅋ' 글 작성자의 머리에 꿀밤을 한 대 쥐어박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존감 높일 방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자아 존중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자존감 향상'은 시대의 화두가 된 지 오래다. 정신과의사 윤홍균의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은 출간하자마자 베스트셀러로 등극해 100만부 이상 팔리며 이제는 스테디셀러의 반열에 올랐다. '자존심은 강한데 자존감은 낮은 사람', '아들, 딸들이 자존감이 낮은 이유?', '열심히 살아도 점점 낮아지는 자존감,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 등 제목에 '자존감'이 들어간 유튜브 영상들의 조회수는 수백만건에 달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관련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체 자존감이 뭐길래 사람들이 이리도 집착하는 것일까. 광고인 박웅현이 쓴 '여덟 단어'라는 책에서 그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다. 후배로부터 "무엇을 가르쳐야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저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행복한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은 '자존'이라는 생각에 "어떤 위치에 있건, 어떤 운명이건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이게 있으면 어떤 상황에 처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답한다.

책은 한국 사회에서 자존이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어려운 이유는 '잘못된 교육'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아이들 각자가 가진 것에 기준을 두고 그것을 끄집어내기보다는 바깥에 기준점을 두고 맹렬히 쫓게 한다는 것이다.



여덟 단어

박웅현 지음/인티N

저자는 "명문 중학교, 특목고, 일류 대학, 좋은 직장, 엄친아(엄마 친구 아들)를 따라가는 게 우리 교육이다"며 "이렇게 교육받은 우리는 '다름'을 두려워하고, 기준점이 되는 누군가와 다른 내 모습을 상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이어 "한국인은 사람들의 생김새가 저마다 다르고 위치도 다르며 삶의 지향점도 다른데 똑같이 살아야 마음이 편해진다"면서 "나의 '자존'을 찾는 것보다는 바깥의 '눈치'를 보는 게 습관이 돼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한다.

모든 인생은 전인미답이며 다른 건 틀린 게 아니기에, 남의 답이 아닌 자신의 답을 찾는 사람이 되라고 책은 조언한다.

272쪽. 1만7000원. /김현정 기자 hjk1@

유튜브, 제국의 탄생

마크 버겐 지음/신솔잎 옮김/현대지성

유튜브의 하루 시청 시간은 10억 시간에 달하며, 해당 플랫폼에는 1분마다 500시간 이상의 영상이 업로드된다. 20년 전 실리콘밸리의 허름한 사무실에서 세 명의 젊은이가 장난같이 시작한 무명의 동영상 사이트는 현재 세계 최대 콘텐츠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책은 유튜브와 구글의 전·현직 직원, 비즈니스 파트너, 유튜브 크리에이터, 규제 기관 담당자 등 300여명을 취재해 언더독 스타트업이었던 유튜브가 어떻게 전 세계를 장악한 초거대 테크 기업이 됐는지 낱낱이 까발린다. 저자는 유튜브가 인간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광기와 중독의 콘텐츠 플랫폼을 탄생시켰다고 지적한다.

560쪽. 2만5000원

인플루언서 탐구

올리비아 얄롭 지음/김지선 옮김/소소의책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SNS에 뿌린다. 오늘 누구와 뭘 먹었는지, 어떤 물건을 샀는지, 가족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등 매일 자신의 사생활을 생중계한다. 온라인상에 일상을 공유하는 일은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고도로 수익성이 높은 산업으로 성장해 인기 있는 이들을 백만장자로 만들었다. 한번도 만난 적 없는 수백만명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온라인상의 유명인, 인플루언서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인스타그램의 최고 인플루언서인 카일리 제너는 포스트 건당 120만달러를 받고, 장난감 언박싱 등으로 인기를 모은 라이언 카지는 2020년 광고 수익으로 2950만달러를 벌어들였다. 소셜 미디어 스타가 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좋아요'와 구독자 수에 울고 웃는 인플루언서의 세계를 다룬 책. 448쪽. 2만3000원.

달라붙는 감정들

김관옥 외 4명 지음/의료인류학연구회 기획/아몬드

세월호 참사와 코로나19 사태, 이태원 참사. 지난 10년간 이어져 온 사회적 비극들은 한국인의 몸과 마음에 무엇을 남겼을까. 인류학자인 저자들은 반복되는 참사 속에서, 우리 각자의 삶에 끈적하게 엉겨 달라붙는 감정이나 정서를 '정동'이라 명명하고 이를 추적한다. 책은 우리 사회의 공통적인 정동은 '무관심'과 '무기력'이라고 진단한다. 충분히 애도되지 못한 사건들 위에 새로운 비극이 포개지고 진상규명이 무산되는 것을 반복해 목격하는 동안 이 같은 감정과 정서를 학습했다는 것이다. 책은 무심함이 어떻게 무자비함으로 변했는지, 우리가 복원해야 할 애도와 돌봄이 무엇인지 밝힌다.

225쪽. 1만7500원.

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서울시, 중증치매환자 위한 전담병원 운영
▲日후쿠시마 앞바다서 규모 6.0 지진… 지진해일 우려·원전 이상 없어' /사진 뉴시스

▲'수천만 달러 분쟁' 디즈니, 행동주의 투자자 대결서 압승
▲나토 수장 "7월 정상회의에 한국 초청…오늘 외무장관 회의 참석"

▲美재무 "中, 배터리·전기차 과잉생산 초래…추가 보호조치 가능"
▲대만 강진 9명 사망·1050명 부상…전기·수도 공급 회복 중 /사진 뉴시스

❶

❷

강남 최대규모 단지… '도심에서 즐기는 자연' 누려보세요

❸

❹

구룡역 5번 출구서 도보 5분 거리
주변 버스정류장 8개로 교통편리

지하 4층~지상 35층, 6702세대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시공

단지 내 대형수목으로 숲 조성
중앙광장 강조로 휴식 특화공간
리조트형 테마정원, 아트요소 결합
단지 내 초·중학교, 대치동도 근접

❶ 단지 내 전경
❷ 야외 커뮤니티 시설
❸ ❹ ❺ 놀이터
❻ 클라이밍을 할 수 있는 공간

❺

아파트의 미학(美學)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작년 12월부터 시작해 이제 입주가 마무리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지하철 수인분당선 구룡역 5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 거리다.

단지 자체가 웬만한 마을 2개 규모다 보니 구룡역 방향인 114동, 115동 등 거주 동에 따라 교통여건은 다소 달라지지만 단지를 둘러싼 버스 정류장만 8개일 정도로 불편이 없다. 양재IC를 이용하거나 3호선을 주로 타는 주민들은 구룡마을쪽 동을 선호하기도 했다.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는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다. 지하 4층~지상 35층, 74개동, 총 6702세대에 달한다. 강남 단일단지로는 최대 규모다.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는 첫 번째, 우선을 뜻하는 '퍼스트(First)'와 단계를 의미하는 '티어(Tier)'의 합성어다. '강남 최고 등급'의 주거 공간이란 의미로 지었다. 학군과 교통, 환경 모두 빠질 게 없다.

전체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1획지와 2획지로 나누어 1획지는 HDC현대산업개발, 2획지는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전용면적은 소형(34㎡)부터 펜트하우스(179㎡)까지 아파트에서 가능한 모든 타입이 다 있다. 이 가운데 ▲34㎡ 237세대 ▲49㎡ 324세대 ▲59㎡ 549세대 ▲112㎡ 59세대 ▲132㎡ 66세대 등 총 1235세대가 일반분양됐다.

단지내 도로를 따라 들어가면 대형 주문(게이트 1, 2)이 웅장하게 자리잡고 있다. 더에이치아이파크(THE H PARK) 로고가 고급스럽게 부각돼 있으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 전체를 지하화해 지상공원은 차가 다니지 않는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남향 위주의 단지배치로 주거쾌적성을 높였다. 유리난간 일체형의 조망형 이중창이 적용돼 발코니를 확장해도 내부에서는 시야 간섭이 없고, 외관 역시 깔끔하다.

조경 컨셉트는 도시에서 즐기는 자연(Nature in Urban)이다. 숲과 물, 정원, 산책길, 놀이터와 체험공간까지 멀리 나가지 않고 단지 내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대형 수목으로 숲을 조성했으며, 중앙광장을 강조해 주민들이 여유롭게 쉴 수 있는 특화 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리조트형 테마정원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물이 흐를 수경공간은 물론 색다른 조형물로 아트 요소도 결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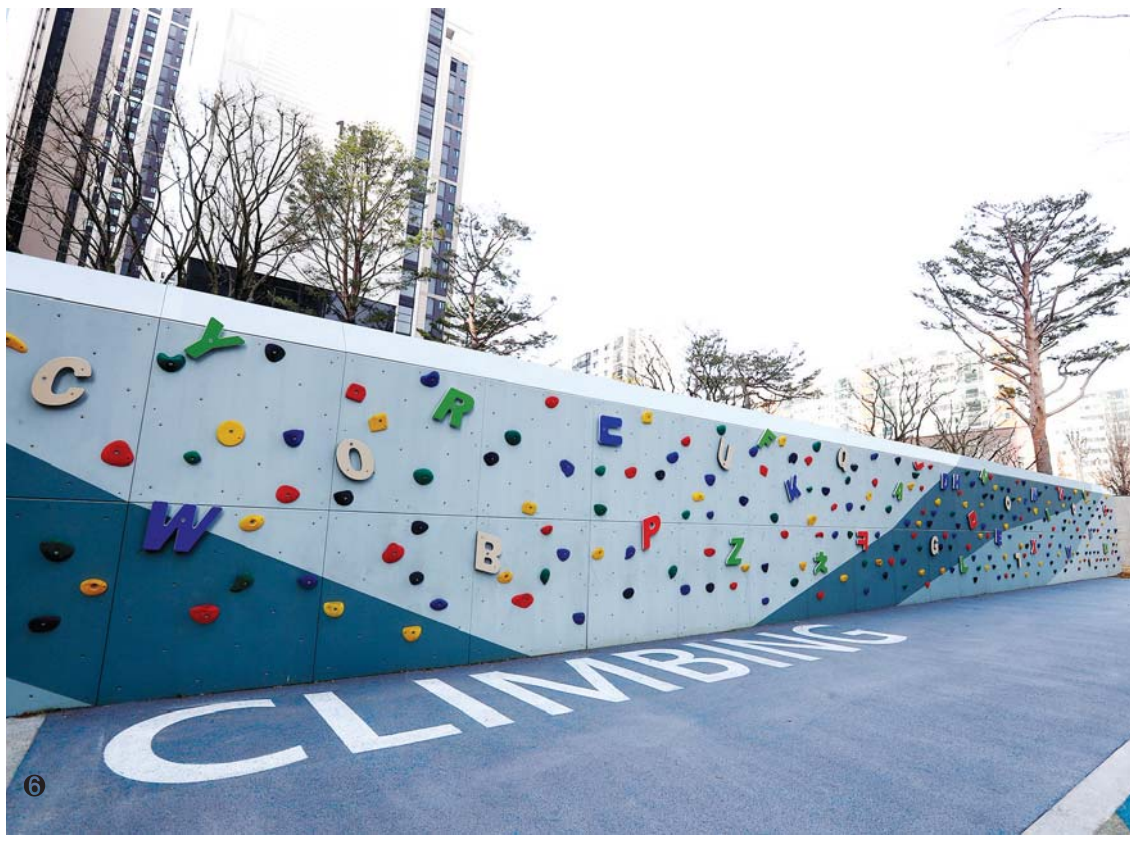
단지를 둘러싼 자연환경도 좋다. 양재천을 비롯해 개포근린공원, 구룡산, 대모산, 탄천 등이 단지에 인접해 있어 자연을 가까이서 누릴 수 있다.

단지 곳곳에는 커뮤니티시설이 위치해있다. 각 구획마다 피트니스 센터와 사우나, 키즈센터, 가든카페가 있다. 1획지에는 실내 체육관과 볼링장, 골프연습장, 도서관이 있으며, 구름다리를 건너서는 실내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다.

야외에는 여름철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보호자는 이를 지켜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단지 안에 개원초등학교와 개포중학교가 자리해 소위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이자 '중품아'다. 주변에는 구룡중, 대치중, 대청중, 개포고 등 명문학군이 형성돼어 있으며, 대치동 학원가도 버스로 10~15분이면 갈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❻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5407호 2024년 4월 5일 금요일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에 차남 임종훈

L1

기아 EV9 독일서 전기차 1위

L2

상쾌한 가글로 입 안 청소 싹~ 42년 구강건강 지켜온 '필수템'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동아제약 '가그린'

1982년, 국내 최초 구강청결제 선봬
가글링+클린 어원 따와 이름 붙여
사치품 고정관념 깬 생활필수품으로

카카오프렌즈와 협업, 한정판 출시
복숭아, 유자민트 등 새로운 향도

투명용기, 점착식 라벨로 재활용 용이
멸종위기 동물 보호 캠페인 실천도

동아제약 대표 브랜드 중 하나인 '가그린'이 올해 출시 42주년을 맞이했다.

동아제약은 지난 1982년 국내 최초 액상 구강 청결제로 '가그린'을 선보였다. '가그린'이라는 브랜드명은 영어 단어를 조합했다. '입 안을 헹구다'라는 뜻의 의성어 가글링과 '깨끗한'을 의미하는 형용사 클린이 붙어서 탄생한 이름이다. 입 안 청결을 강조하고 있다.

가그린의 효능·효과는 구강 정화, 구취 제거, 치태 제거, 충치 예방, 치은염 예방 등으로 다양하다. 아침이나 식사 후에 가그린 10~15ml를 입 안에 넣고 약 30초간 잘 섞은 후 뱉는다. 구강을 상쾌하게 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된다.

지금까지 42년 동안 동아제약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구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안전한 성분으로 품질 높은 제품을 완성하는 데 역량을 쏟았다.

하지만 처음 동아제약이 가그린을 선보였던 1980년대에는 구강 청결제가 사치품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당시 우리나라 국민 소득 수준이나 구강 청결제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없었던 시대적 배경이 작용한 것이다.

가그린 피치민트(위)와 유자민트.

이후 동아제약은 가그린이 입 냄새 제거, 충치 예방에 특화된 간편한 액체라는 제품 특징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구강 청결제가 가지는 생활용품으로써의 가치도 전달했다. 그 결과 1997년 가그린은 매출 70억원을 달성했다. 2000년대에는 깨끗한 물방울을 상징하는 캐릭터 가글이와 상큼이와 함께 가그린은 소비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무엇보다 가그린이 구강 청결제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동아제약의 적극적인 제품 개발에 있었다. 동아제약은 2003년 치과 진료 후 구강 관리를 돕는 '가그린 덴탈'을 출시했고 2005년에는 신개념 제품으로 스프레이 형태 '가그린 후레쉬액'을 내놨다. 또 동아제약이 2013년부터 판매하고 있는 '가그린 파우치'는 1회 사용량 10ml를 담은 막대 제품이다.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휴대성을 높인 것이다.

이에 따라 가그린은 2009년 매출 100억원을 돌파하고 2012년 200억원, 2020년 300억원으로 비약적인 성과를 올렸다. 아울러 지난 2023년 가그린 매출은 312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브랜드 입지를 확보한 가그린은 현재 제로, 제로블라스트, 오리지널, 스트롱액, 후레쉬라임, 카모마일 등 성인용 제품과 어린이용 제품으로 구성됐다. 소비자 연령대와 취향에 따라 폭넓은 제품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특히 가그린 제로와 제로블라스트는 무알코올 제품이다. 에탄올 없이도 충분히 구취를 제거하는 등 구강 청결제 기능을 갖췄다는 것이 동아제약의 설명이다.

MZ세대 소비자를 공략한 한정판 제품도 있다.

동아제약은 지난 2023년 여름, 가그린 피치민트를 선보였다. 카카오프렌즈와 협업해 복숭아 캐릭터 '어피치' 디자인을 적용했다. 또 달달한 여름 제철 과일 복숭아 향에 산뜻한 민트 향을 더했다.

가그린 피치민트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같은 해 겨울에는 유자민트가 새롭게 출시됐다. 동아제약은 해당 제품에 겨울 대표 과일 유자 향을 담고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라이언과 춘식이를 그려 MZ세대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어린이 가그린은 양치에 서툰 아이들을 위한 제품이다.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고 불소 성분도 적정 함량으로 포함해 어린이 충리 관리를 돕는다. 또 동아제약은 어린이 가그린은 사과, 딸기, 청포도 등 어린이가 좋아하는 향을 활용해 양치 시간을 더욱 즐겁게 만든다고 설명한다.

동아제약은 어린이 가그린 캐릭터도 자체 개발했다. 초능력 히어로 '오롤로'와 '가글봇', 충치악당 '카악', '가글링즈'는 '가글리아'라는 입 속 세상에 살고 있다.

동아제약은 이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동화책 '오롤로와 가글링의 가글리아 대모험'을 제작했다. 동화를 통해 아이들에게 올바른 생활 습관을 제시하기 위해 교통안전, 양치습관, 식습관 등 총 3가지의 주제를 정했다.

한편, 동아제약 가그린은 친환경 행보도 이어왔다.

동아제약은 가그린에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설계를 적용하고 있다. 동아제약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실시되기 이전인 2019년부터 제품 용기를 투명한 용기로 교체했다. 유색 플라스틱은 색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함유돼 재활용이 어렵지만 투명 폐플라스틱은 의류용 섬유, 부직포 등으로 2차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품 표면에는 수분리성 점착식 라벨을 사용한 것도 특징이다. 용기 재활용 과정에서 라벨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 친화적 제품을 선보인 동아제약은 한국환경공단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에서 '재활용 우수 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

동아제약이 환경을 위해 가그린 제품에 적용한 수분리성 점착식 라벨. /동아제약

뿐만 아니라 동아제약에 따르면 투명 용기로 바꾼 후 오히려 깨끗한 치아를 상징하는 용기 모양이 잘 드러나서 소비자 호감도가 높아진 점도 유의미한 성과다. 게다가 가그린은 색소가 들어있지 않아 내용물 또한 물처럼 투명해 제품 특징이 더욱 돋보였다.

2022년에는 투명 용기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색상이 들어갔던 라벨 디자인을 투명한 그라데이션으로 바꿨다. 제품 뒷면의 표시사항 라벨은 흰색으로 변경해 소비자들이 전성분과 주의사항을 보다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 가그린 제품 라벨에는 반달가슴곰, 수리부엉이, 사막여우 등 멸종위기 동물 9종의 일러스트를 담아 어린이의 구강 건강을 지키듯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고 지켜나가자는 SAVE2SAVE 캠페인을 실천하기도 했다.

SAVE2SAVE 캠페인은 동아제약이 2021년부터 서울대공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진행하고 있는 행사다. 어린이 가그린 수익금을 멸종위기 동물 보호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다. 동아제약은 자연과 인류의 공존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SAVE2SAVE 캠페인 일환인 '멸종 위기 동물 지구 방위대'에는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과 가족들이 참여해 서울대공원에서 청소 및 동물 장난감 제작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친다.

이같은 SAVE2SAVE캠페인은 지난 2023년에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가 주관하는 'ESG 캠페인 대상'에서 공익연계마케팅 부문 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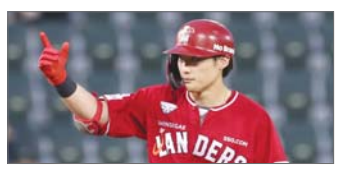
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린가드 없이 5골 폭발…K리그1 서울 일류첸코의 부활 /사진 뉴시스

▲오타니 옛 스승 "60억 절도 몰랐다는 에이전시, 말도 안 돼"

▲'포수 강백호' 나쁘지 않은데?…올해 벌써 두 번째 마스크

▲12년 전 '99승' 발목 잡은 키움…류현진, 이번엔 승리 할까



▲'SSG 타선 도화선' 최지훈·박성한, 하위권 평가에 무력시위 /사진 뉴시스

▲황선홍호 "U-23 아시안컵 우승 목표…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박지성"